

2000년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며 그 어느 해보다 더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찌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마가서 5장 2절

코로나19 시대에도 더 빛나는 성탄절 온다!

TGC, 대강절 시작...데이비드 매티스 목사의 미리 보는 펜데믹 크리스마스 보도

“아마도 올해 2020년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기억하는 이상적인 과거의 크리스마스가 아닌, 오래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가져다 준 놀라운 우여곡절과 더 조화를 이룰 것이다.” 조만간 가을추위가 겨울추위로 넘어갈 것이다. 화려한 황금빛 들녘은 곧 하얀 눈으로 뒤덮일 것이다. 할로윈과 추수감사절을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는 앞으로 계절이 어떻게 바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대강절의 시작과 함께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다.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시간, 잊었던 사랑하는 감정이 되살아나는 마법과 같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그건 2020년이 되기 전까지 이야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가 지금 전 지구를 휩쓰는 전염병 시대에도 가능할까? 올해도 과거와 같은 크리스마스일까? 전염병만 아니라면 너무도 아름답지만 할 이 시간이 올해도 가능할까?

DesiringGod.org의 주필이며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Cities Church의 담임목사인 데이비드 매티스(David Mathis)는 요즘과 같은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나는 크리스마스야말로 오래 전 진짜 크리스마스와 가장 비슷할 것이라며, 미리 묵상해보는 코로나 시대 크리스마스를 소개한다(Have a Holly COVID Christmas).



‘거리두기 시대’ 결핍된 영양소 touch!

Aeon, 인간 신체적 접촉 전문연구자 라우라 크루시아벨리에게 듣는 ‘촉감’의 필요성(상)

촉감(touch)은 우리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각인 동시에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져가는 감각이다. 마가렛 애틀프는 “눈먼 암살자(The Blind Assassin)”에서 이렇게 말했다. “손은 눈보다 빠르고, 말보다도 빠르다(Touch comes before sight, before speech)”. “촉감은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자 가장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말이며, 항상 진실만을 말한다.” 이는 생물학적으로도 사실이다. 태아는 16주됐을 때 솜털(lanugo)이라는 가는 털로 뒤덮인다. 연구자들은 이 솜털이 모체의 양수가 주는 안락함을 느끼게 만들어 출산 후 어머니의 품에 안겼을 때 아기가 느낄 따스함과 평온함의 시작일 수 있다.

스웨덴 신경과학연구소(Karolinska Institute) 석좌연구원이자 린던대학 임상교육보건심리학 명예연구원인 라우라 크루시아벨리(Laura Crucianelli)박사는 과학전문지 ‘에온(Aeon)’에 현재와 같은 비대면 상황에 오히려 대면 즉 ‘접촉/촉감의 르네상스’가 있어야 한다고 기고했다(The need to touch: The language of touch binds our minds and bodies to the broader social world. What happens when touch becomes taboo?).

미 전역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급증해 ‘거리두기’가 더욱 요구되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그녀는 인간은 신체적 접촉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 “뉴노멀”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뒤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로 깨닫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다. 과학자이자 인류의 일원으로서 그녀는 접촉의 권리를 주장하며 누구도 접촉에 굶주리지 않는 세상을 꿈꾼다.

촉감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감 전달하게 해주는 나의 진실한 친구이다. 촉감은 우울한 나를 위로 해주며 기쁠 때 그 기쁨을 남에게

(3면으로 계속)

거리를 두는 크리스마스

매일 매일이 새로운 도전을 주지만 우리는 바뀌는 계절 가운데서 익숙한 리듬을 느끼며 그 속에서 안정과 위안을 얻는다. 가장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인생이 처해있을 때조차 우리는 볼이 되면 눈이 녹고 여름에는 태양이 가장 뜨겁게 빛나고 또 가을에는 나뭇잎이 떨어지며 겨울이면 다시 눈발이 휘날릴 것이라는 사실에서 안정을 찾는다.

그러나 2020년 크리스마스는 누구라도 평생 처음 맞이하는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수십 년간 우리는 익숙한 패턴에 젖어있었다. 물론 종종 황당한 기대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이해할 만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만나리라고 누가 감히 예상이나 했을까?

크리스마스의 중심은 친구와 가족이 얼굴을 맞대고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 이삭이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개념



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까? 정작 하나님은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는데 말이다.

불확실, 예측 불가

전쟁과 같은 비극의 트라우마를 피할 수 있었던 우리들에게 2020년 크리스마스는 가장 특이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는 결코 우리가 매년 12월에 기대했던 그날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애초에 그런 식으로 전개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기대와

위로에 맞춰주시는 날이 아니라 영혼이 깨어난 우리가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는 하나님의 방식과 생각을 깨닫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아마도 이번 크리스마스와 강림절은 비록 많이 늦었지만 우리로 하여금 오래 전 이 땅에 찾아왔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는지를 새롭게 생각할 기회를 줄 것이다. 아마도 올해 2020년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기억하는 이상적인 과거의 크리스마스가 아닌, 오래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가져다준 놀라운 우여곡절과 더 조화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기억하라. 위대한 왕인

다윗과 그의 왕좌를 영원히 세울 통치자가 다윗의 계보에서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후 무려 천년이 지났다. 이삭이 임마누엘, 아이를 뱀 처녀, 어깨에 정사를 짊어진 아들, 그리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7:14; 9:6)라고 예언한 지 7세기가 흘렀다. 말라기와 히브리어 정경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400년을 더 기다렸다. 아무도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약속한 메시아가 그토록 수 세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역사의 첫 조각을 움직이셨을 때, 아무도 나사렛을 추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사렛? 이스라엘 밖에서는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었으며, 그렇게 구석진 산간에서 좋은 것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훨씬 더 적었다.

(4면으로 계속)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서적/일반서적/백스펠러/성구/성화 액자/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press.net / chpress@chpress.net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오늘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선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가 된 산상수훈에서 그 방향을 찾아보라!

산상수훈 登山寶訓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 基督徒的人生指標

강기봉 목사
평신도 선교사로 미국에 파송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현 Missio Seminary, Hatfield,PA)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뉴욕백민교회 개척
뉴욕백민교회 원로목사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교수
저서 하나님의 사람 사람의 사람(칼럼집)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사도행전 강해설교)
문의 kangkibong@hotmail.com

신국판 | 한중 합본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400(NY) 323-665-0009(LA)

구입문의
히즈핑거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 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입니다.

발행인 칼럼

마지막 달력



김성국 목사 (켄즈장로교회 담임)

좌-악 뜯어내니 달랑 한 장 남았다. 슬한 사연을 싣고 한 장 한 장 뜯겨나가던 2020년의 달력이 드디어 그 마지막 모습을 드러냈다. 마지막이란 비장하고도 결연한 단어이다. 올해의 교회 달력 마지막에는 눈 내린 트랙 가운데에 작은 분수대가 있고 트랙을 감싼 몇 그루의 나무들이 서있는 사진이 있다. 그 뒤에 뾰족한 탐을 세운 교회가 몇 채의 집과 어울려져 있고 그 위로 맑은 겨울 하늘이 조용히 펼쳐져 있다. 슬플 이유가 없는 사진인데 계속 바라보자니 슬프다. 올해의 많은 아픔의 이야기를 뒤

에서 듣다가 속으로 울고 울어서 그런가. 마지막 달, 서른 한 날이 주어졌다. 무엇인가 포기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그렇다고 무언가 새로 시작하기에는 촉박한 시간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잘한 것도 다 허물어질 수 있는 시간인가하면 지금까지 못한 것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낙심도 말고 방심도 말고 마지막 남은 한 달을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서른 한 날 가운데 단연코 눈길을 끄는 날짜는 25일이다. 성탄절이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풀 위에 자네"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었다. 그런데 그곳에 오셨다. 우리를 구하려. 우리를 살리려. 우리 무엇 때문에 그분의 늘 자리를 내드리지 못했는가. 그 분이 오시는 것도 모를 정도로 바빠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책 세워져 그분을 맞을 공간이 정말 없었나? 구유에 구주로 오신 성탄의 12월이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되었을까? 어릴 적 교회 선생님이 가르쳐준 율동과 함께 부른 어린이 찬송이 있다. "탄일종이 땡땡 땡 은은하게 울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탄일종이 땡땡 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탄일종이 울린다" 단순하여 재미있게 불렀지만 매우 선교적(?) 어린이 찬송이었음을 훗날 깨닫게 되었다.

마지막 달력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사40:8). 마르는 것이 풀 만이라, 시드는 것이 꽃 만이라. 그것을 올해 푹푹 보았다.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이 시들고 마른다. 그것이 한계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만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다. 이 말씀을 붙잡는 자는 마지막이란 단어가 두렵지 않다. 이 세상의 어떤 마지막도 넘고 넘어 영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고통과 아픔을 갖고 온 2020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지지만 말씀의 사람들은 누구나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물론 날로 새로워진다.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는 2020년을 닫고 계속 흥왕케 된다.

마지막 달력에 원로목사님 성함이 있다. 지난 4월 10일, 성금요일 오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귀한 목사님이시다. 목사님의 성함은 달력에만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력을 내리고 잊을 분이 아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새겨져 계시다. 잊을 수 없는 분이시다. 내 삶에서 오랫동안 담임으로 모셨던 목사님, 훗날에는 원로목사님으로 모셨던 목사님. 내겐 목사님이란 직분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을 어찌 쉽게 잊겠는가. 마지막 달력은 많은 이야기를 품고 내 곁에 한 달 있을 예정이다. 두뿔뿔씩 하루하루를 걸어가 달력은 잊지 못할 2020년 끝나가고 있음을 던지시 일러주고 있다.

암울한 겨울 뒤 봄은 다시 올까?

Huffpost, "2021년에 코로나19 상황 좀 나아질까?" 의학/공중보건 전문가 의견 보도

2020년은 끔찍한 한 해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거다. 코로나19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 냈고 우리가 알던 일상을 잃게 했다. 이미 23만5000명의 미국인이 사망했다. 연말을 앞두고 다가오는 2021년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툴레인대학의 전염병학 부교수인 수잔 헤시그는 "내가 볼 때 2021년은 정말 미스터리"라고 말했다. "모든 게 너무나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중보건 당국자들이 정한 규칙을 국민이 얼마나 철저히 준수하는지와 어떤 종류의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에 대해 어떤 선택이 가능해지는지에 따라 내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백신 보급 후에도 당장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최근 글로벌 제약업체 화이자 현재 단계에서 희망적인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을 알렸다. 화이자는 자사가 개발 중인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90%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자는 자사가 개발 중인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90%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자는 자사가 개발 중인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90%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백신은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이 일상적인 일을 더 안전하게 완수

역사화 내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출 수 있다. 마르티넬로는 백신의 효과가 80%만 되더라도 매우 높은 효능을 보이는 것이라며 목표인 '인구의 80% 면역형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발생할 수 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가들이 코로나19에 대해 무엇을 알아내느냐에 달려 있다. 매일 상황은 변하고 있고, 2021년은 많은 움직임이 '부품'에 의해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확신은 어렵지만 몇 가지 예측은 가능하다. 허프포스트는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에 코로나19 대응은 어떤 모습일지, 2021년을 보다 긍정적인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사회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Experts Predict What The COVID-19 Pandemic Will Be Like In 2021:Here's what we may see with the coronavirus next year, from wearing face masks to a vaccine).

지난 몇 달 동안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실험이 진행됐지만, 12세에서 18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첫 백신실험은 10월말에서야 시작됐다. 그리고 여전히

종한다고 해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레비 교수의 말이다. "우리는 아직 학교를 어떻게 할지 알아내지 못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인만 백신을 맞는 걸로 충분할지 모르겠다."

백신 유통의 문제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대중은 좋은 실든 좀 더 공중보건 조치와 과학적 과정을 더 잘 알게 됐다.

"미국 대중과 전 세계 대중은 과학이 정말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걸 알게됐다"고 헤시그는



백신이 단숨에 코로나19 종식시킬 수는 없을 것 예상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당장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는 없다. 예일대 뉴헤이븐헬스 리처드 마르티넬로 감염예방 의료국장은 "전국적으로 백신접종을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거론되는 대부분의 백신은 대부분 2번 맞아야 하며 보통 1개월 간격으로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르티넬로는 "수여 개의 투약 가능한 백신이 확보되더라도 정작 모든 인구가 백신을 맞으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구의 약 70-80%가 코로나19에 면역돼있어야 지

는 인구의 100%가 백신을 접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완성된 안전한 백신 수억 도스가 필요하다. 백신 개발과 백신에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미국 내 모든 인구가 백신을 접종 받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당연히 내년 안에는 불가능하다.

성인용 백신이 어린이용 백신보다 먼저 개발될 확률이 높다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 페렐만대의 역학 부교수인 마이클 레비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특정(현재 코로나19 감염의 중심인) 그룹만 백신을 접종받는다면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전했다. 그는 또 어린이용 백신이 성인용 백신과 같이 조속히 개발되지 않으면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바이러스가 단지 어른이나 노인이나 취약층만 백신을 접

했다. "우리는 과학의 영역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해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단지 과학의 일부 일 뿐이다."

"과학 분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 이 치료법이 유망해 보인다'라고 하다가 '사실은 좋은 치료법이 아니었다'고 밝혀질 때 정말 좌절할 수 있지만 사실 과학계에서는 흔한 일이다. 그런 일은 늘 있다."

이 좌절감이 백신이 어떻게 유통되는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대중들은 2021년에 백신이 어떻게 배포되는지 자세히 들여다 보게 될 것이며, 이 과정은 다른 주요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문제와 더불어 여러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화이자의 백신은 냉동보관이 필요한데 많은 장소가 그런 설비를 갖추지 못할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Joon Mo Myung, MD, a medical professional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s listed.

Advertisement for Bethesda Dental, a dental clinic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s listed.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L.A. and N.Y. offices.

Large advertisement for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Receive God's Blessing) featuring a list of books, a seminar announcement, and contact information for ordering.

‘거리두기 시대’ ...

(1면에서 계속)

스웨덴에 산지 10년이 넘는 이탈리아인으로서 나는 신체적 접촉의 부족을 종종 느끼며 이는 내 기분과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북유럽은 남유럽에 비해 신체적 접촉을 훨씬 덜 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 어쩌면 지난 수년간 내가 인간의 신체적 접촉을 연구한 이유는 이 때문인지 모른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의 시대’는 인간이 가진 가장 중요한 감각에 심각한 결핍을 만들고 있다. 코로나19는 사람들 간의 접촉을 공공장소의 기침이나 재채기 다음 가는 최악의 금기로 만들었다. 코로나19는 확진자의 미각과 후각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인류 전체의 촉각 또한 가져갔다. 촉각은 어쩌면 이 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일지 모른다.

지금의 물리적 거리두기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 돌봄과 양육의 관점에서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누군가를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들어 나르고, 치료행위를 하는 등의 수단적 접촉(instrumental touch)에서부터 교감을 목적으로 하며 위로와 지지를 제공하는, 보다 정서적인 행위를 말하는 표현적 접촉(expressive touch)을 이루는, 타인을 돌보는 모든 과정에는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요구된다.

뇌 과학자들이 도수 치료사들과 같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마사지 치료에는 치료사가 행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 곧, 누군가의 손이 환자의 피부에 닿는 것 자체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접촉이 없다면, 돌봄도 없고

치료도 없다.

사실 지금의 거리두기는 인류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물리적 거리두기의 연장으로 볼 수도 있다. 기술의 발달은 모든 세대가 물리적 접촉이 아닌 소셜네트워크를 기본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삼게 만들었다. 최근 한 설문조사는 집대의 95%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며 45%가 ‘거의 항상’ 온라인에 접속해 있음을 보였다.

촉각을 다른 감각과 구별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감각이 상호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쳐다보지 않는 사람을 쳐다볼 수 있지만 촉각은 그렇지 않다. 코로나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은 환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그들과의 교감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보호장구 때문에 서로 이야기할 수 없고 웃거나 적절한 표정을 보일 수도 없지만 의료진이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고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식으로, 환자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킬 수 있다. 코로나19에서 신체적 접촉은 분명 전염의 원인이지만 또한 치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촉각은 궁극의 사회적 연결도구이며, 다행히 인간은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1990년대에는 신체적 접촉이 인간의 발달과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 다수의 연구가 발표됐다. 생애 첫 해에 신체적 접촉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루마니아 고아원의 아이들은 충분한 두뇌 발달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이후 인지적, 행동적 결함을 보인 경우도 있다.

성인의 경우에도 사회적 접촉이 부족한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더 일찍 사망한다. 신체적 접촉은 노후에 특히 더 중요하다. 한 연구는 요양원의 노인들에게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경험하게 했을 때 그들의 음식섭취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였다. 보거나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촉각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정보를 주며 이를 통해 타인과 소통과 교감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과학자들은 이제 촉각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연구하고 있다. 신체적 접촉은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심박수를 떨어뜨리고, 혈압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아지게 만들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옥시토신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 친구들과 깨안고 반려동물과 쓰다듬을 때마다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이 나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한다. 옥시토신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며 또 뇌의 발달을 돕는다. 옥시토신은 자기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연구실은 최근 옥시토신이 다감각 통합(multisensory integration)이라는 감각의 결함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다감각 통합은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감각이 서로 무관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의 대상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해주는 능력이다. 또 자기 신체를 지각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며, 우리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우리는 사람들을 실험실로 불러, 고무손 착각 실험으로 알려진 잘 알려진 심리 실험을 수행했다. 이 실험은 사람들의 진짜 손을 가리고 가짜 고무손

을 보여준 상태에서 진짜 손과 고무손에 같은 자극을 주었을 때 사람들이 가짜 고무손을 마치 자신의 진짜 손으로 착각하게 되는 실험이다. 우리는 애정이 담긴 부드러운 자극을 주었을 때 사람들이 고무손을 자신의 손으로 더 빨리 착각하게 된다는 것을 보였다. 이는 정서적인 신체적 접촉과 옥시토신이 우리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갖는 감각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촉각은 우리가 가장 먼저 발달시키는 감각이자, 우리가 가진 가장 커다란 기관인 피부에 의해 주어지는 감각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유난히 미성숙한 개체로 태어난다. 갓 태어난 아기는 움직일 수도 없고,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으며, 자신의 체온을 조절하지도 못한다. 이는 인간의 생존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다.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와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키며, 젖을 먹이고, 잠을 재우는 등의 모든 행동에서 촉각이 작용한다. 태어난 후 몇 달이 지난 뒤에도 아기와의 신체적 접촉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산후우울증은 아기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산모와 아기가 충분한 신체적 접촉을 가짐으로써 서로에게 그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신체적 접촉을 통해 양자가 모두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아기와 부모 사이의 신체적 접촉은 두 사람의 옥시토신 수치를 모두 증가시켜 부모와 아기 사이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음호에 계속)

아름다운 겨울 뒤 봄은 ...

(2면에서 계속)

그는 백신 유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백신 유통은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일인데 이런 문제들이 백신에 대한 망설임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 초기 주거 불확실성과 코로나19 확산

올가을 초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확

산을 줄이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쫓지 못하도록 하는 퇴거유예를 발표했다.

일부 집주인들이 제도의 허점을 발견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유예조치로 미국 전역의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노숙자가 되는 것을 피했다. 그러나 올해 마지막 날 유예조치가 끝날 때, 이 같은 사태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미칠 영향에 대해 레비는 우려하고 있다.

그는 “새해전야에 일어날 임시 유예된 사람의 예상되는 퇴거조치 수는 어마어마

하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살던 집에서 쫓겨날 때 친구들, 가족, 또는 누군가 자신을 데려가주는 사람과 함께 살았다고, 그러면서 더 큰 인원수의 가구를 만들었다”고 레비는 말했다. “가구의 인원이 크게 늘어나면 집 안에서 코로나19 확산의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레비는 가구 내 접촉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가정 내의 접촉 유형은 때때로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접촉 유형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파트너를 껴안거나 소파에서 아들 또는 딸을 옆에 앉히

는 것과 같은 접촉은 낯선 사람 옆을 지나가거나 식료품점에서 계산원과 접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그는 한 가정의 인원수가 많아질수록 가정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확률이 높아지고 대규모 전염을 촉진하거나 이전에는 막을 수 있었던 바이러스를 다시 유행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1월 1일을 생각하면 퇴거유예 종료와 그 이후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고 레비는 말했다.

공중보건 정책의 재평가 (6면으로 계속)

시론

예수께로 6마일!



은희곤 목사 (뉴욕 참사랑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시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미 700년 전에 미가의 예언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미가 5:2). 또한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왕과 제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걸어서 가면 3시간, 노새를 타면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불과 6마일뿐이 안되는데도 말입니다. ‘관심이 없어서’입니다. 임으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목자가 될 것이다”라고 떠들었지만 진짜 이들은 ‘메시아의 탄생’에 별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현재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밭 사고, 소 사고, 집 사고,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들은 종교지도자로서 살았을지는 몰라도,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베들레헴으로 갈 생각조차 안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산 넘고 강 건너 메시아를 만나고자 4개월이 걸려 밤을 지새며 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디 그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도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매해마다 반복되어 찾아오는 성탄절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해줄 메시아”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주식이 올라가고, 환율이 떨어지는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향력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 인맥을 넓혀 가느냐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파티에 관심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긴 하지만 진정 ‘예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는 안계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나에게 예수는 누구신가?’ 그리고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나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예수전도단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젊은 생명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헌신케 하신 김정준 목사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예수는 백문일답입니다. 백문, 나에게 백가지 질문을 물어봐도 일답, 대답은 오직 하나 예수뿐입니다”라고.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이 죄에 매인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려고 6마일 거리에 오셨는데 당시 그 6마일을 걸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도 그 6마일을 걸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에, 사랑에, 위로에, 영생에 이르기까지, 예수께 이르기까지 6마일, 이제 우리는 강림절을 맞아 1마일씩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별을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이 걸음을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통해 함께 나눕니다.

꿈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말틴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차와, 수프,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왜 안오셨습니까?” 그러자 어둠속에서 자신이 낮에 대접했던 늙은 청소부와 아기 안은 여인, 그리고 사과를 훔친 소년과 노파가 나타나 말틴에게 미소를 지었고, 이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틴, 오늘 내가 나를 진정 보지 못했느냐? 난 오늘 너를 세 번이나 찾아가 만났었다.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이다. 너는 나를 대접한 것이다.”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6마일을 걸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며 사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보잘 것 없는 사람들에게 극진히 대접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과 같은 것이다”(마25:40)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천하는 이런 ‘선한 사마리아의 마인드와 스피릿’ 그리고 선행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와 만나는 ‘나의 성탄절’을 살게 됩니다. 강림절기, 예수께로 6마일입니다.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교육학 박사 Ed.D/목회학박사 D.Min/교육목회학박사 D.Ed.Min

목회학석사 M.Div/성경적상담학 석사 MABC/기독교교육학 석사 MACE/신학연구석사 MTS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600명 이상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삶에 적용할 때 비로소 그 능력이 드러납니다

토론토 워드 박물관(Ward Museum)은 19세기에 살았던 이사포 목시카(Isapo Muxika)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크로우푸트(Crowfoot)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식시카(Siksika) 인디언 부족의 추장으로서 대 분쟁의 시대 동안 캐나다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은 자로 알

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Canadian Pacific 철도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크로우푸트의 땅의 작은 한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크로우푸트에게 제안하기를 만일 철도 건설을 위하여 당신의 땅 한 부분을 제공해준다면 당신의 평생 동안 언제든지 어디든지 무료로 기차를 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협상을 잘 타결하여 철도는 잘 건설되었고 크로우푸트 추장에게는 평생 기차 승차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 기차 승차권에는 크로우푸트의 이름이 쓰여 있었고 어디든지 언제든지 기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로우푸트가 한 번도 사는 동안 기차를 타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기차를 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가 다른 곳으로 여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행할 때 단지 말을 타거나 걸어서 여행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평생 승차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믿지 못했거나 아니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크로우푸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인용하여 글도 쓰고 액자에 써서 벽에 걸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글들을 SNS와 같은 사회 매체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찰스 스웰전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약속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그 상황에 적용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 말씀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 때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몇백년 만에 찾아온 재앙인 펜데믹의 기간이 참으로 길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역시 주권자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쟁과 염병으로 말미암은 혼란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을 꺼내어 사용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롭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은 그 많은 약속의 말씀 중의 하나라도 꺼내어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 말씀으로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가를 목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서삼정 목사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본 시편의 표제가 “다윗의 미답”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미답은 그 뜻을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숨겨졌다, ‘황금보석’을 뜻한다. 그래서 본 시편을 ‘황금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시에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음을 오순절 날 베드로가 말했다(행22:7). 그러므로 유대 랍비들에게는 숨겨진 보화와 같이 신비로운 것이었다. 본문은 다윗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고 또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된가를 고백하고 있다.

있는 든든한 아버지시다. 여호와와 나의 주님이시니 복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목자, 나를 돕는 자라는 고백을 많이 했다.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니라 실재다. 하나님을 실제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목자로, 나를 돕는 분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과 사랑하며 사는 것

나 좋고 만족한지 다른 신을 찾지 않는다고 했다. “내 입술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겠나이다”(4절). 여호와와 우리의 산업이요 소득이시니 복이다. “여호와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5절). 다윗은 자신의 왕국이 기업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분깃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 자신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을 우리의 분깃으로 주셨다. 하나님 자신

활은 먹고 마시는 것까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니 얼마나 복인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기업이 복이다. 6절,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현재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것이다. 토지분배를 하면서 줄로 재듯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의 몫을 나에게 지금 주셨다. 내게 주신 재산만 아니라 가족, 교회, 친구... 모든 것을 뜻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즐거워하며 누리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며 사는 것이 복이다.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훈계해주시는 것이

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모셨다. 우리도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고 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면 즐겁다.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의 모든 슬픔보다 더 크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때는 어떤 슬픈 문제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육체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더 나아가 우리 영도 즐거워하게 해주신다. 영혼의 즐거움은 마음의 즐거움보다 훨씬 더 깊은 즐거움이다. 영혼의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즐거움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만족해하

서 이렇게 말했다. 행2:30-31.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시라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정복, 삶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안에 있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주님은 우리 앞서 가셔서 길을 여셨다. 그 길이 우리가 장차 갈 생명의 길이다.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을 주시니 복이다. 11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은 기쁨의 원천이시고 그 기쁨을 완전하게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충만한 기쁨은 기쁨의 절정을 뜻한다. 충만한 뿐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다.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은 그 기쁨을 조금 맛보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서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미래의 복이 오늘 현재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살 때 주시는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생각하며 살자.
현재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 현재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 신앙생활이 복이다.
ok.kfpcchurch@gmail.com

신앙생활이 복이다

시편 16편 1-11절

1. 신앙생활은 현재가 복이다(1-7).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복이다. 나는 항상 예수 믿는 것이 왜 좋은가 물으면 기도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한다. 우리가 어린 시절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가?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고아가 얼마나 불쌍한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언제나 도움을 구하라고 하시고 구하기만 하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이 복이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께 피하는 것은 나쁜 아이들이 쫓아올 때 아버지 등 뒤에 숨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버지 등 뒤에 숨으면 안전하다. 아버지가 대신 막아주기 때문에 안심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이 복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다. 조건이나 인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사43:4).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아야 한다. 어떤 분이 “양이 병들어도 한 가지 절대 하지 않는 것은 염소의 무리와 어울리지는 않는 것처럼 성도는 아무리 시험에 들어도 성도의 무리와 어울리며 세상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서로 교제하다 아픔이나 갈등도 있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함께 지내는 것을 복으로 알아야 한다. 신앙생활이 얼마

나 좋고 만족한지 다른 신을 찾지 않는다고 했다. “내 입술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겠나이다”(4절). 여호와와 우리의 산업이요 소득이시니 복이다. “여호와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5절). 다윗은 자신의 왕국이 기업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분깃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 자신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을 우리의 분깃으로 주셨다. 하나님 자신

복이다.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밤 고요한 시간에 양심의 훈계를 받는다. 이 때 듣는 훈계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해준다. 이때 듣는 훈계가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해주고 우리의 길을 바르게 해준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된다. 우리가 주의 교훈으로 인도받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이처럼 신앙생활은 현재가 복이다.
2. 신앙생활은 미래에도 복이다.
하나님을 항상 모시는 것이 복이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어.”
다윗은 가끔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를 모시고 살았다. 멀리 모신 것

실 때 주시는 즐거움이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안전장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므로 전 세계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있다. 이런 때에도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실 뿐 아니라 삶을 복되게 해주신다.
영생의 복을 주신다.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믿는 자에게 부활과 영생의 복을 주신다. 베드로는 이 구절을 예수님의 부활에 적용해

는 평생에 걸쳐 축적된 향수와 기대로 범벅이 돼 잘못된 방향으로 향할 수도 있는 “당신의 크리스마스”를 12월의 변집함에서 해방시키실 것이다.
아마도 올해 2020년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기억하는 이상적인 과거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가져다준 놀라운 우여곡절과 더 조화를 이룰 것이다. 그런 크리스마스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일을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나는 크리스마스야말로 오래 전 진짜 크리스마스와 가장 비슷할 것이다.

코로나19 시대에도...

(1면에서 계속)

갈릴리조차도 예루살렘에서 꽤나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그리고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고? 이사야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했다. 다른 건 몰라도 고대인들도 이런 사실만은 오늘날 우리와 다를 것 없이 똑똑하게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법령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정확한 시간에 마리아와 요셉을 다윗의 마을로 데려와 미가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미5:2).
그들이 도착했을 때 어머니와 거룩한 아기가 될 장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눅2:7). 예수가 누구인가? 다윗왕의 후손이 아닌가? 궁전에 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부유한 부모를 상상할 때, 차마 어린 양(눅2:24)은 말할 것도 없고 비둘기도 사지 못할 만큼(레12:8) 가난한 부부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기인데 위대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태어나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런데 천사가 방문한 건 초라한 목자들이였고, 천사가 그들을 인도한 곳은 마구간 구유였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멀리서 온 이방인 학자들이 도착했다. 심지어 베들레헴에서 고작 5마일 떨어진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학자

들도 방문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메시아의 가족이 유대를 떠나 이집트로 도망쳐야 했을 때 하나님은 또 얼마나 우리의 기대를 뒤집으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집트 노예의 태에서 나왔다. 이집트에서 그의 아들을 불러내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의 아들을 오히려 이집트로 부르셔서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와 같은 악마적인 폭군을 피하도록 하셨다.
마침내 성전에 있는 시므온이라는 노인으로부터 날카로운 말이 터져 나왔다. 한편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언급 정도로 쉽게 간과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말이었다. 마침내 기다리던 메시

아가 오셨을 뿐 아니라 그 메시야는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사건은 그 메시야가 죽음을, 그것도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시므온은 마리아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같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눅2:34-35). 당신의 영혼도 예외가 아니다. “내 영혼이 찢릴 거라고?” 아마도 그녀는 몰랐을 것이다. “잠깐, 뭐라고? 그런데 메시야가 찢릴 거라고?”

첫 진짜 크리스마스
인간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가졌던, 세계를 변화시킨 그 놀라운 힘에 익숙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 아마도 우리는 연례 일과와 더불어 12월의 교회이야기,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각종 축하행사를 즐기면서 잠드는 데 너무나 익숙해졌나보다. 하지만 2020년의 크리스마스는 다를 것이다. 정말로 다를까?
예상치 못한 2020년 크리스마스과 대강절 서막은 우리에게 환멸보다는 더 큰 희망을 준다. 크리스마스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우리에게 다시 소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한 크리스마스에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다. 아마도 올해 하나님

은 평생에 걸쳐 축적된 향수와 기대로 범벅이 돼 잘못된 방향으로 향할 수도 있는 “당신의 크리스마스”를 12월의 변집함에서 해방시키실 것이다.
아마도 올해 2020년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기억하는 이상적인 과거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가져다준 놀라운 우여곡절과 더 조화를 이룰 것이다. 그런 크리스마스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일을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나는 크리스마스야말로 오래 전 진짜 크리스마스와 가장 비슷할 것이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올바로아는게힘이다성경적세계관으로무장!

연방대법 "뉴욕주지사의 교회참석제한명령은 종교의 자유침해" 판결

기쁜 승리의 소식입니다. 미연방대법원은 이번에 뉴욕주 쿠오모 주지사(Andrew Cuomo) 주지사가 종교건물 및 예배장소에 대한 제한을 새롭게 시행하고자 하는 것을 추수감사절(Thanksgiving) 전날 밤에 심야긴급판결에서 5 대 4로, 쿠오모 주지사의 규정에 반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승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여 새로 임명된 Amy Coney Barrett 판사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이번 판결에서 중추적 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뉴욕주지사 앤드류 쿠오모는 교회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숫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제는 교회건물크기와 상관없이 수용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만일 교회가 쿠오모 주지사가 명령한 새로운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려 15000달러의 벌금까지도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2015년 쿠오모 주지사가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더 강화하기위해 Human Rights 라는 인권단체와 손잡고 젠더이름을 당시 31 개를 통과시킨 후 그 젠더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할 경우 벌금을 적게는 무려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그리고 계속 어 기면 25만 달러까지도 벌금을 물수 있었던 걸 통과한 것이 기억나게 합니다. 그 당시의 규정도 결국은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만 아는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뉴욕주지사 쿠오모가 직접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또 다시 벌금까지 물게 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었는데, 감사하게도 두 단체가 주지사 명령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1월 9일 브루클린의 가톨릭교구가 쿠오모의 명령에 맞서 대법원에 긴급신청서(Emergency application)를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두 개의 정통유대인(Orthodox Jewish) 회당들이데, 그들 역시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브루클린캐톨릭교구는 기사 인터뷰에서 "교구내 교회들은 현재 수개월 동안 안전하게 운영되었으며 기존 정부지침을 엄격히 준수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COVID-19의 확산으로부터 교구민을 보호해왔다. 쿠오모 주지사가 명령한 규칙은 너 무 말이 되지않게 선을 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의 명령엔 그 어떤 합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브루클린은 주지사의 이중 잣대를 이야기하며 다음처럼 비교를 했습니다.



"다른 '필수사업체-Essential business'는 용량제한 없이 개방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필수사업체'가 아닌 주황색 영역에서도 대부분의 사업체들도 용량제한 없이 개방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필수비즈니스'라는 용어는 어디에 사용되는가? 알아보니 식료품점에서 애완동물가게, 회계 및 급여사무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주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필수사업체(Essential business)"와 "non-essential business"의 차이가 애매모호하다

면서 왜 교회만 이중 잣대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규정은 수정헌법 제 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쿠오모 주지사가 시행하려는 교회 예배모임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전에 법원에 제출된 COVID 관련 규정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전염병에 의해 타격을 입은 다른 많은 관할권에서 채택한 규정보다 훨씬 더 엄격하며, 바이러스확산을 방지하기위해 표시된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

대법원은 쿠오모의 새로운 규정 제1조인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펼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쿠오모의 새로운 규정) 수정제 1 조의(신앙의 자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만일 이 규정(쿠오모)을 허용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팬데믹 유행병 속에서도 헌법은 버리거나 잊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추수감사절 이브 늦은 밤 미연방대법원은 "뉴욕주지사의 규정은 중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나 비비즈니스와 달리 예배와 모임은 성도숫자만 제한시키는 것은 특별히 가혹한 대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정책"이라며, 쿠오모 주지사의 새로운 규정/정책을 헌법위반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쿠오모주지사는 소송들이 제기된 후 그동안 영향 받았던 교회와 회당이 최대수의 50%를 보유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5:4로 승리한 판결, 미대법원에서 교회예배 및 성도 숫자 제한에 찬/반한 판사들은 누구인가?

교회예배와 모임에 대해 반대 판사들은: 로버트 대법원장과 스티븐 브레이어(클린턴 지명), 소니아 소토마요르(오바마 지명), 엘레나 케이건(오바마 지명)판사들이었습니다.

이번 교회 모임과 예배 케이스에 찬성한 판사들은: 5명 중 3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이었으며 이번에 뽑은 에미디 베렛(Amy Barrett)의 중추적 활약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아슬했지만 5:4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5명의 판사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참고로, 꼭 알아야하는 게 있습니다. 코비드에 대한 주류 언론들의 지나친 "두려움"을 조장하는 뉴스들만 들으면 분별력을 놓치기 쉽습니다. 코비드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테스트가 늘어나서이며, 코비드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언론은 그들이 코비드 때문만이 아니라 본래 다른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도 안해주고 있음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CDC에 의하면 지금까지 발표된 사망자들 중 94% 이상이 이미 pre-existing 질병을 갖고 있다가 사망한 사람들로서 코비드만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6%로 CDC는 기록하고 있기에 코비드에 대한 주류언론의 통계는 좀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3장을 보면 목사나 장로 즉 감독이란 지도자가 되는 자격을 바울은 목회서신에서 15가지나 까다롭게 자격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만큼 중요한 직책이기에 심사숙고해서 잘 검증이 된 사람만 세우라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 등 지도자는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영향력이나 악한 영향력이나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구비해야 할 요소가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해 달라고 하니 "지도자가 되려면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도자는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사람이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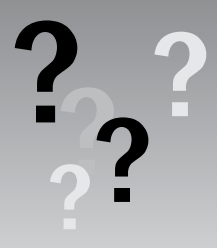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나안 정탐을 12명의 각 지파의 지도자급의 사람들을 파송해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땅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의 지도자들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가나안 땅이 좋긴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강한 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환경만 보고 불가능하다 안된다, 못한다 라는 부정적인 말과 생각으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시켰습니다. 악한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차라리 지도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가진 자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절대 긍정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히 말과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남에게 용기를 주고 꿈을 주어 사람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긍정의 언어훈련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소개합니다. 시골 성당의 주일 미사에서 신부를 돕고 있던 한 소년이 실수를 하여 제단의 성찬으로 사용할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신부는 즉시 소년의 뺨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서 물러가고 당신은 제단 앞에 오지마." 이 소년은 쫓겨났습니다. 이 소년은 장성하여 공산주의 지도자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되어 기독교 말살 탄압정책을 펼쳤습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소년에게 평생 상처를 주어 유능한 청년을 반기독교의 선봉에 서는 악한 인물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다른 큰 도시의 성당에서 미사를 돕던 한 소년 역시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신부는 곧 이해와 동정이 어린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여 주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큰 신부가 되겠구나." 이 소년은 자라나서 유명한 대주교 홀튼 윈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 긍정적 말의 힘이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절대 긍정의 사람, 절대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의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매사에 부닥칩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청년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지도하는 목사가 되던지 아니면 장로가 되어 평신도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해주십시오 바랍니다.

-Yoo 집사

A: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목사나 장로 즉 감독이란 지도자가 되는 자격을 바울은 목회서신에서 15가지나 까다롭게 자격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만큼 중요한 직책이기에 심사숙고해서 잘 검증이 된 사람만 세우라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 등 지도자는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영향력이나 악한 영향력이나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구비해야 할 요소가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해 달라고 하니 "지도자가 되려면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도자는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사람이어야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나안 정탐을 12명의 각 지파의 지도자급의 사람들을 파송해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땅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의 지도자들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가나안 땅이 좋긴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강한 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환경만 보고 불가능하다 안된다, 못한다 라는 부정적인 말과 생각으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시켰습니다. 악한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차라리 지도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가진 자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절대 긍정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히 말과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남에게 용기를 주고 꿈을 주어 사람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긍정의 언어훈련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소개합니다. 시골 성당의 주일 미사에서 신부를 돕고 있던 한 소년이 실수를 하여 제단의 성찬으로 사용할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신부는 즉시 소년의 뺨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서 물러가고 당신은 제단 앞에 오지마." 이 소년은 쫓겨났습니다. 이 소년은 장성하여 공산주의 지도자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되어 기독교 말살 탄압정책을 펼쳤습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소년에게 평생 상처를 주어 유능한 청년을 반기독교의 선봉에 서는 악한 인물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다른 큰 도시의 성당에서 미사를 돕던 한 소년 역시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신부는 곧 이해와 동정이 어린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여 주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큰 신부가 되겠구나." 이 소년은 자라나서 유명한 대주교 홀튼 윈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 긍정적 말의 힘이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절대 긍정의 사람, 절대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의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매사에 부닥칩니다.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제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674-7982, (323) 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세멘다우(SEMENDAU)

11만 4천 명의 세멘다우족은 적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섬 고원 평지를 따라 거주한다. 다른 세멘다우족 또한 인접한 섬에서 살고 있는데 특히 수마트라 동해안과 보르네오의 해안에서 좀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 세멘다우 사람들은 이 지역에 사는 3개의 혈연관계가 있는 집단 혼합민족인 '파세마(Pasemah)'의 하위집단이다.



세멘다우족은 한때 보르네오 섬 해안에 살았었고 후에 무역과 선원생활을 하면서 수마트라와 파세마 반도로 확대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들의 문화는 시암인(Siamese), 자바인(Javanese), 그리고 수마트라인(Sumatrans)을 포함한 다른 민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부키 바리산 산맥은 세멘다우인의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 중요하다. 이 산맥은 물이 저지대 평지, 연안의 습지대, 그리고 동쪽의 방카해협(Bangka Straits)과 서쪽으로

인도양으로 내려가기 전에 고원평지를 지나 흐르는 큰 강들의 근원이 된다.

삶의 모습

세멘다우족은 도시보다는 촌락에 살고 있는 전형적인 사람이다. 도시 대부분은 밀림으로 덮여있다. 50-1000명 정도 되는 인구가 사는 마을들은 연안, 강, 길가를 따라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의 초가지붕 집들은 땅바닥에서 4-8피트정도 떨어져 그들을 지탱시키는 말뚝 위에 세워진다. 더 잘사는 사람들은 환판 바닥과 타일 지붕들로 지어진 집들에 산다. 농업은 직업의 약 80%를 차지하는 주된 직업군이다. 쌀, 고무 그리고 커피는 3대 주요 농작물이며 주요 물물교환 농작물은 고무이다. 황소나 물소를 이용해서 논농사를 하고 경

작한다. 파종은 5-10명 정도의 고용인이나 품앗이를 통해 작업하며, 고용인들이 대가족의 멤버들이 모든 추수를 한다. 세멘다우족의 평소애 밥과 함께 주로 옥수수, 감자, 고구마, 그리고 물고기를 먹는다. 바나나는 계절과일들, 땅콩과 함께 1년 내내 먹을 수 있다. 반면 닭과 염소 요리는 특별한 행사에만 준비된다. 이 지역에는 사실상 길이가 없다. 그래서 식수와 관개용수가 충분하다. 그러나 강물과 우물물은 자주 오염되어 있어서 마셔야 한다. 세멘다우족의 가족관계, 특히 부모와 자녀사이의 결속력이 강하다. 가족은 전형적으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로 구성되며 기본적인 가족신념(철학)은 "먹든지 굶든지 함께 하자"다. 결혼은 보통 부모가 중매한다. 한 자녀의 결혼 후 집안에

남아있는 아들이나 딸이 어린 동생들을 돌볼 책임을 져야하며, 가족의 땅이나 재산도 갖고 가정의례를 행하게 된다. 가족을 벗어나서 결혼한 자녀들은 이러한 가족책임의 의무를 벗게 된다. 세멘다우 여자들은 보통 긴 소매 블라우스와 "사롱스-sarongs"(채색 면스커트)를 입는다. 그들은 스카프를 쓰지는 않지만 다른 이슬람교 여자들처럼 베일로 가리지는 않는다. 남자는 주로 서양식 면셔츠와 느슨한 바지를 입는다. 신양 거의 모든 세멘다우족은 시아 무슬림(Shafite Muslims)들이다. 각 촌락에는 이슬람교 사원이 공식적인 종교중심지 역할을 하며, 대부분 남자들은 금요일 기도모임에 참석한다. 그

러나 수마트라 힌두교가 크게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면 많은 시골사람들은 여전히 토지와 밀립의 신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또한 교과적이고 의학적인 치료법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반면, 무당(사교 치료사, 또는 약사들)들도 여전히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치료를 하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시골지역의 실업률이 높아져서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수마트라의 도시중심지로 옮긴다. 또한 많은 어린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있어 이 또한 실업률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더욱 고등교육의 교육비 증가와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또 다른 문제들이 되고 있다. 성경도 영화 "예수"도 세멘다우 언어로 번역되지 않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세계선교단체, 기독교 개종 무슬림위해 기도

'당신은 혼자 아님니다'(You are not alone). 전 세계 선교단체와 기독교인들은 지난 18일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인(MBB·Muslim-Background Believers)을 위한 기도의 날에서 MBB와 함께하겠다는 기도를 했다고 미국 CBN 등이 보도했다. 이슬람 전문 선교단체인 하루안이브라힘오브알하야트미니스트리(이브라힘)는 미국 CBN과의 인터뷰에서 MBB들이 이슬람을 떠난 뒤 박해받는 상황에 대해 기도를 요청했다. 이브라힘 관계자는 "이슬람은 타종교로의 개종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슬람을 거부하고 3일 이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슬람국가 전체가 개종자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나라는 사형을 언도한다"며 "많은 개종자들은 직업을 잃거나 가족을 떠나야 한다. 심한 경우 목숨까지 잃는다"고 밝혔다.



이브라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MBB들은 자신들을 해방시킨 복음의 진리와 그 가치를 기꺼이 받아들여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MBB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게 관련 선교단체들의 전언이다. 전 세계 MBB를 위한 인터넷 웹사이트인 '커뮤니티 메시아니카'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이트이다. 전 세계 MBB들의 기도제목과 기도 응답, 간증을 볼 수 있으며 이들이 전 세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MBB들의 간증과 기도응답에 따르면 전 세계 모든 이슬람권에는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 복음을 접하고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들이 살아간다. 특히 이란의 무슬림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 3월 이후 매일 3000명 이상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기독교인 사이에선 '희망의 팬데믹'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美 성탄절 전 백신 접종 시작

암울한 겨울 뒤 봄은 ...

(3면에서 계속) 우리의 예상대로 암울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역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는 이미 현실이다. 연중 가장 추운 달로 접어들면서 환자 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 상황이 2021년 5월까지는 우리가 예상 가능한 현재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마르티넬로는 말했다. 그는 "봄에서 여름이 될 때가 상황을 재평가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재평가가 유행병 예방 조치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어떤 종류든 늦은 봄에 이뤄질

재평가 후에도 마스크 착용이나 신체적 거리두기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대신, 그는 지금이 공공보건계가 잠시 멈추고 지난 시즌 미국이 취한 대응 방식을 되돌아볼 시기라고 전했다. "우리 전략의 어떤 측면이 효과적이었는지, 어떤 측면이 실패했는지, 백신이 나온다면 백신이 우리의 접근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시기다." 그러므로 대규모 콘서트나 대규모 모임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그 대신 사람들이 더 안전한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공공 보건 지침과 이와 관련된 소식을 지켜보라고 마르티넬로는

덧붙였다. 마스크 착용 같은 안전조치 계속 시행된다 현재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게 코로나19의 확산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싶다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내년을 바라볼 때 마르티넬로는 이런 공공보건 지침들이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전했다. 마르티넬로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는 것 외에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안전 조치들이 독감과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의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

약성경 번역을 마무리했다.

김 선교사는 1989년 성경번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GBT와 남서울교회 파송을 받아 2년간 미국에서 성경번역에 필수인 언어학을 공부했다. 93년부터 A국에서 소수민족 언어를 연구하며 언어학 석·박사 과정을 마친 뒤 동쪽마을로 갔다. 인구 70만명의 동향족은 99.99%가 무슬림이다. 김 선교사는 기독교인이라는 게 발각돼 2018년 A국에서 추방당할 때까지 25년간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연구했다. 목표는 분명했다. 동향족 언어로 성경을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었다. 선교사가 아닌 언어학자 신분으로 현지 언어학자 및 지방정부와 함께 알타이계 몽골어인 동향족 언어를 연구했다. 2000년엔 영어로 표기한 동향족 언어사전도 만들었다. 김 선교사는 "한글로 표기할 수도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했다. 그들에게 의견을 구해 알파벳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02년부터 A국 정부와 동향족 마을 인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4년씩 두 번, 총 8년간 언어 교육도 했다. 성경번역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동향족 사람들이 쓰지 않던 표현과 단어를 연구하면서 시간은 길어졌다. 심리적 압박도 받았다. 김 선교사는 "조심스럽게 친구를 사귀며 한두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열매가 없으니 심적으로 힘들고 조바심이 났다"며 "성경번역을 영원히 못할 것 같다는 부정적 생각도 들었다"고 전했다. A국 정부와 동향족 무슬림들은 김 선교사와 주변 사람을 감시했다. A국에서 추방된 뒤 한국에서 번역을 마무리해 지난 4월 인쇄를 시작했다. 신약성경은 지난달부터 동향족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전달되고 있다. 김 선교사 부부는 성경을 받은 동향족 사람들의 반응을 인터넷 화상으로 확인했다. 아내인 정한나 선교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강하고 끈질긴 것을 봤다"며 "손에 성경을 든 형제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감사했다"고 말했다. 김 선교사는 구약성경도 동향족 언어로 번역하고 아이들을 위한 책도 만들 계획이다.

마라도나, 잠들다...눈물로 배웅한 팬들

아르헨티나 '족구 전설' 디에고 마라도나가 국민들의 열렬한 추모 속에 영면에 들었다. 마라도나는 26일 저녁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의 베야 비스타 공원묘지에 안장됐다. 전날 자택에서 갑작스러운 심장 마비로 60세의 생을 마감한 지 하루 만이다. 아르헨티나의 '국민 영웅'으로 불렸던 마라도



나의 마지막 길엔 수많은 팬이 함께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날부터 사흘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고인의 시신을 대통령궁 카사 로사다에 안치해 조문객을 받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전 6시 조문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수많은 팬이 카사 로사다 앞에서 줄서 기다렸으며, 날이 밝은 후에는 줄이 점점 길어져 인근 수 km까지 조문 인파가 늘어났다. 빈소로 들어간 팬들은 아르헨티나 국기와 유니폼으로 덮인 고인의 관을 향해 성호를 긋거나 키스를 보내며 '족구의 신'에게 눈물의 작별 인사를 했다. 카사 로사다 근처 5월 광장(플라사 데 마요)도 국기와 유니폼을 두르고 '디에고'를 외치는 팬들로 가득 찼다. 5월 광장은 마라도나를 추종으로 한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우승한 후 팬들이 모여 환호하던 곳이기도 하다. 유족의 뜻에 따라 이날 저녁 장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었는데, 조문 마감 시간을 앞두고 고인에게 미처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한 팬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이를 통제하려는 경찰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바리케이드를 뚫고 무질서하게 밀려드는 팬들에게 최루탄과 고무탄을 쏘며 해산을 시도했다. 결국 고인의 유해는 혼란 속에서 예정보다 조금 일찍 카사 로사다를 떠나 장지로 향했고, 장례 차량이 지나는 길목마다 수많은 팬이 아르헨티나 국기를 흔들며 배웅했다. 베야 비스타 묘지에서 유족과 가까운 지인들만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다. 묘지 밖에는 역시 추모 인파로 가득했다.

북중무역 99%급감... "김정은, 코로나로 생명줄 끊어"

북한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생명줄과 같은 중국과의 교역을 차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미국 CNN 방송은 10월 중국의 대북 수출이 25만 3000달러로 전달보다 99% 감소했다는 중국 세관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 수입은 74% 감소했다. 북한이 식량이나 연료 공급에 차질을 빚더라도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을 차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CNN은 전했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8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물자반입금지령을 어긴 핵심 간부를 처형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CNN은 수입 물품 처리 과정에서 방역 규정을 지키지 않은 세관 직원을 처형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북한이 코로나19를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속-성도

초창기 한국교회 성도들은 쉽게 교회를 옮기지 않았다. 처음 등록된 교회에 소속되어있는 것을 당연시 하였기에, 몇 대에 걸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교회로부터 치리를 받은 성도들도,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체면문화에도 불구하고 쉽게 교회를 옮기지 않았다. 교회를 옮긴 성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아주 멀리 이사를 하는 경우나 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른 교회로 소속을 옮겨야 했다. 그러나 성도는 임의대로 교회를 바꿀 수 없었고 반드시 정해진 이명절차를 밟아야 했다.

장로교회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과거 성도들은 출석하던 교회로부터 '교적부'와 '이명증서'를 발부받아 새로 옮길 교회에 제출하였다. '교적부'는 신급, 직분, 가족관계 등이 기록된 교회 보관용 문서이다. '이명증서'는 성도의 요청을 받은 당회가 정당한 이유를 살피고 이를 허락할 때 발급하는 증서이다. 타 교회로부터 전입하는 성도를 새로 받아들이는 교회도 매우 신중했다. 당회가 성도를 자세히 살핀 후 에 교회의 등록교인으로 허락하였다.

상황이 달라지면서 한 성도의 출입을 두고 보내고 받아들이는 교회가 함께 관계하던 전통이 사라졌다. 6.25전쟁 전후로 공산당에 의해 북한교회가 강제로 문을 닫게 되었다. 성도들이 대거 남한으로 이동하면서 이명절차에 큰 차질이 생겼다. 또한 1970년대 산업화 이후 인구이동이 대거 생겨났다.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도시거주자들도 새로 개척된 신도시로 물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새롭게 개척되었다.

1970년대 초에 시작된 민족복음화로 인해 전도 받아 처음 교회를 찾은 성도들의 수가 늘어났다. 각 교회는 과거 다른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이나 초신자들을 동반해서 '새 교우'라는 명목으로 받아들였다. 대부분 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등록교인으로 받아들였다. 후에는 새 교우들에게 기초 교리와 교회 소개를 골자로 하는 과정을 이수하게 한 뒤에 등록교인이 되는 자격을 부여하는 교회도 있었지만 신앙검증보다 환영의 의미가 더욱 컸기에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점점 타 교회와 관계 속에서 성도의 전입을 살피는 기능이 마비되었다. 각 교회마다 독립적으로 '등록교인'을 관리하는 일에 집중하는 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수평이동이 가속화되면서 대형교회가 생겨난 뒤 성도의 전입과정이 사라지고 이와 함께 소속감 역시 매우 미약해졌다. 1960년 이후 사회적 변화와 함께 개교회주의가 대두된 것이다. 지금도 경쟁적으로 교인의 수를 늘리는 일에 관심을 쏟는 교

회일수록 전입성도의 과거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거나 묵과한다.

현재는 '교적부'와 '이명증서'를 요구하거나 발급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 성도들은 이런 문서들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교회를 처음 방문 또는 등록시에 작성하는 '교인카드'가 전부라고 생각한다. 새 교우를 등록교인으로 받아들일 때 본인의 진술에 근거해 과거 신급과 직분을 인정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성도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에 이로 인해 교회 안 에 사태가 생긴 뒤에야 수습하는 경우가 있다.

단주의'라는 함정에 빠지거나, 교단의 독단적 행보나 불법적인 처사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아예 교회 위에 교회가 있을 수 없다며 개교회주의를 정당화하여 독립 교회로 남아있으려는 교회도 간혹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교회는 특정 교파와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교파와 교단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교리적 일치'라는 것이다. 즉 교리에 있어 의견을 함께 하는 교회들이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들은 대

이 생겨난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지금까지 교회 안에 성경해석 방법이 매우 다양하였으며, 새로운 관점을 지닌 교리가 등장하면 이에 동조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이 응집되었다는 것이다. 사도들에 의해 시작된 초대교회가 확장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교리형성을 요구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삼위일체 이해와 같은 신비스런 과제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 인간이 어떤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이르러까지, 많은 질문들에 대해 분명한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 내에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였다. 이때 전문

였지만 교황의 수위권에 관한 교리는 정으로 인해 동서 교회로 갈라졌다. 그 후 두 교회는 독자의 길을 걸어갔다. 개신교가 탄생한 16세기 종교개혁의 무대였던 서 유럽에는 오직 하나의 교회, 즉 로마가톨릭교회만 존재해 있었다.

초기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집중했던 것은 로마가톨릭교회의 성경적 오류를 통해 교회를 개혁하는 일이었다. 영적으로 어둠된 교회를 향해 성경의 진리라는 큰 빛을 밝히고, 타락한 교회의 정신적 지배를 받았던 유럽인들을 일깨우기 위하여 성경적 진리를 널리 알렸다.

마르틴 루터(1483-1546)와 율리히 츠빙글리(1584-1531)와 같은 초기 종교개혁자들은 결코 독립된 교회를 세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개혁을 주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로마가톨릭교회는 이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도리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하여 개혁 세력을 억압하였다. 그 결과 더 이상 한 지붕 아래 함께할 수 없게 되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개신교가 새롭게 탄생된 것이다.

작고 미약하게 시작된 개혁의 불길 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로마가톨릭교회를 대항하는 세력이 커져갔다. 그러나 개신교 지도자들은 막강한 파워를 지닌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었고 그런 의도도 없었다. 그들이 활동하였던 독일과 스위스 지역은 서로 상이한 지리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로마가톨릭교회의 근본적 오류를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치된 의견을 지니고 있었지만 각자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였기에 성찬과 세례, 그리고 예배 의식 등과 같이 중요한 교리에 대해 이견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루터교회, 개혁교회, 재세례파 등의 교파가 생겨났으며, 영국의 성공회는 독특한 정치적 배경으로 인해 동시에 개혁파 신학과 구교의 예전을 수용하며 중도적 길을 걷게 되었다.

초기 개혁자들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필립 멜랑히톤(1497-1560), 마르틴 부처(1491-1551), 또는 하인리히 불링거(1504-1575) 등의 개혁자들과,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등장한 요한 칼빈(1509-1563)과 존 낙스(1513-1572)와 같은 개혁자들은 두 가지 사명에 집중하였다. 하나는 개혁 세력을 저지하려던 로마가톨릭교회를 효과적으로 대항하는 일이었다. 다른 하나는, 이미 시작된 개신교가 어떤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성경적 고민이었다. 그 결과 그들은 교리적으로 각자의 길을 걸어갔으며 각 교파의 전통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15면으로 계속)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25)

교회가 가르친다!(12)-소속의 중요성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소속-교회

장로교회의 경우 헌법에 '이명증서' 발급이 포함된 교인의 출입이 당회의

부분 특정 교파에 속해 있거나 인준 관계에 놓여있다. 신학생들을 목회자로 준비시키는 교파에는 설교연습 등 다양한 실천적 과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각 교파와 교단이 추구하

적인 성경 연구를 통하여 교리를 확정함으로 다시 교회가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교리란 특정 주제에 대하여 성경 전체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냐를 체계

교회: 성도의 신앙적 양육 돕는 영적 울타리
교단: 교회와 목회자를 세속화 물질로부터 막아주는 영적 울타리
교회등록은 그 교회 신앙노선 따를 것 결심 의미

의무라고 명시되어 있다. 전입교인에 관한 원칙은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은 교회의 정체성 자체를 혼동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성도가 한 교회를 선택하고 등록하면 소속이 분명해지듯, 교회 역시 특정 교파 또는 교단에 소속되어있다. 일반적으로 '교파'와 '교단'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그러나 '교파'는 개신교의 보다 큰 단위(예: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와 '교단'은 각 교파 산하의 세분된 조직체(예: 장로교-함동, 통합, 합신, 고신, 백석...)로 구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구분을 따를 것이다.

교파와 교단에 대한 언급은 항상 조심스럽다. 거대한 조직적 집단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교파주의' 내지는 '교

는 교리 습득과 아울러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을 갖게 하는 훈련에 집중한다.

목회자들 역시 특정 교단에 속해있다. 장로교회의 경우 목사는 노회 소속이다.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해 담임목사를 청빙하지만, 그 결과를 허락하여 요청한 목회자를 교회로 파송하는 것은 노회의 임무이다. 만일 동일한 교단에 속하지 않은 목사를 청빙하려면 노회의 지도를 받아 그 자격을 얻은 후에야 정식으로 담임될 수 있다. 목회자는 반드시 교단이 추구하는 교리를 따르며 동일한 관점에서 성경해석을 하고 설교해야 한다.

성경 해석
즉 교회 역사에 다양한 교파와 교단

적으로 정리해놓은 내용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보자.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는 칼빈주의 교리를 따르는 교파와, 인간 행위의 중요성도 중시하는 알미니안주의 교리를 따르는 교파로 구분된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교회의 회중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할까? 영국의 성공회를 제외하고 개신교는 지 교회 성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회중교회 체계와 민주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장로교회 체계로 나누어진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차이들이 상이한 성경 해석으로부터 기인되었다는 것이다.

1054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되었다. 초대교회 이후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며 하나로 존재하

Worldwide church directory with multiple columns listing churches,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sections like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and various regional church listings.

리더십 코멘터리 (124)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결실의 계절, 영적리더의 감사제목

텅 빈 사람 그리고 가득한 사람

가을 들녘에 익은 곡식들로 황금물결을 이루는 추수의 계절이 돌아왔다. 여름 내내 폭풍우와 무더위 그리고 해충들과 싸워낸 오곡백과들이 농부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결실의 계절이 마침내 돌아온 것이다. 추수감사절은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절기이다. 추수감사절의 근본 정신은 단순히 한 주일만의 행사가 아닌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에 있다.

시인 T. S. Eliot은 현대인을 '텅 빈 사람, 그리고 가득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마음 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비전, 희망, 사랑과 감사는 고갈되어 텅 비어버렸고, 그 대신에 물질만능주의, 쾌락주의, 극도의 이기주의가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오늘

사하던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근본자세가 바뀌어야 한다. 모든 삶을 '감사'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아야 한다. 공동체내에서 장점을 인식하고 그것이 개인과 조직의 성공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고 나면 감사로 가득 차게 되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게 된다. 감사의 현대적 정의는 무엇인가?

첫째, 감사는 선택적 감정이다. 서양 속담에 제일 어려운 수학문제는 '받은 복을 세어 보는 것(Count your blessings)'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우리들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다. 감사는 가장 고급스러운 정서이며 그것은 객관적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 감정이다.

둘째, 감사에 열렬함과 간절함이 필요하다. 감사를 흉내내 해서는 안 된다. 불

하다. 오늘은 소망을 이루고 영원을 준비하는 하루밖에 주어지지 않은 소중한 날이다. 오늘 원망하는 사람은 내일도 원망을 쏟아 놓고, 오늘 게으른 사람은 내일도 게으름에 몸을 맡긴다. 오늘 불행한 사람은 내일도 여전히 불행할 것이다. 사람들은 오늘(present)이 선물(present)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똑 같은 오늘을 기쁨과 감사로 채우는 사람이 있고, 한숨과 원망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다. 오늘을 성공적으로 보내는 좋은 방법은 감사의 습관을 가지는 것이다.

둘째, 언어를 감사모드로 바꾸는 리더가 되라. 사회 곳곳에 불만의 목소리가 넘쳐난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넘쳐난다. 이런 시대에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의 언어를 감사모드(mode)로 바꾸어야 한다. 감사모드는 매사에 감사가 입에 달린 상태를 뜻하고, 불평모드는 매사에 불평이 입에 달린 상태를 말한다. 당신은 감사모드인가? 불평모드인가? 불평모드를 감사모드로 바꾸라. 그러면 상상 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셋째, 심장의 고동처럼 규칙적으로 감사하는 리더가 되라.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교만은 감사의 마음을 죽이지만 겸손은 감사가 자연히 자라게 하는 토양이다. 욕심의 안경을 낀 사람의 눈에는 부족한 것 밖에 보이지 않지만, 감사의 안경을 낀 사람의 눈에는 세상에 감사거리

모든 삶을 '감사' 렌즈 통해 바라보고 최고수준으로 최대 표현 감사모드로 언어 바꾸고 규칙적으로 감사하는 창조적 소수로

날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비판하고 상처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며 살아간다. 살기는 더 편리해졌지만, 내면적인 삶은 더 매 말랐다. 링컨대통령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마다 발전이 있고, 그에게만 창의력이 있다"라고 말했다. 불평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일이 불평스럽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주변의 모든 것이 감사할 것들이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현실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록렌즈를 종이 위에 뿔 때 초점거리를 맞추지 않고 그냥 대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듯이 초점을 맞춰 집광시키면 불이 일어난다. 십씨100도의 물에 5분간 삶으면 국이 모두 죽지만 십씨50도의 물에 5시간 삶으면 국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처럼 감사도 최고의 수준으로 최대한 표현해야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선 열렬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열렬함은 맹렬하게 뜨거운 것을 의미하지만 간절함은 자기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감사에는 열렬함과 간절함이 필요하다.

셋째, 리더의 위기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 찾아온다. 감사가 없고 감사가 상실된 리더십은 팔로워들이 알아차릴 때 리더는 위기에 빠진다.

가 아닌 것이 없다. 감사는 꽃과 같다. 리더, 감사의 말은 인생의 밭에 아름다운 꽃을 심는 것이고, 꽃이 피는 곳에는 나비와 벌이 찾아와 춤을 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영적리더의 감사제목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는 닉네임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건강 때문에 감사하고, 인생의 형통함 때문에 감사하고, 물질적인 풍성함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차원이 다른 감사를 했다. 기독교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고 창조적인 소수, 생명력 있는 보석과 같은 소수에 달려 있다. 헌신된 한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이루어내지 못할 일을 이루어낼 것이다. 감사 실종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적리더가 되어서 감사를 통한 형통의 은총을 누리기를 축복한다.

sondongwon@gmail.com

성품 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위대한 비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당신은 무엇을 구하고 싶으신가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라는 가치(value)는 눈에 보이는 금, 은, 보화의 가치(value)보다 더 크고 원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잠4:7)고 말합니다.

지혜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능력"(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지혜는 자신을 이롭게 하는 '능력'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자신의 능력을 나눠 주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사람이 소개합니다. 청년이었던 그는 좋은 머리와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어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의 좋은 머리와 뛰어난 재주야말로 장래를 유망하게 만들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년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종종 좋은 머리를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시력을 완전히 잃은 그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에 괴로워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몸부림친 끝에 문득 시력을 잃기 전 거리를 지나며 마주했던 시각장애인들이 떠올랐습니다. 소리에 의지해 살아가는 시각장애인들을 생각하며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내 지식을 사용해 보자!" 청년은 그 때부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복잡하게 글씨를 읽어야 했던 기존의 방법들을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바꾸어 문 타이프(Moon type)라는 양각 전문가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문 타이프 방법을 활용해 점자성경을 편찬한 윌리엄 문(William Moon, 1818-1894)의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신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그 사람의 재주나 특별한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성공자로 남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한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을 믿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 탈진할 정도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잠9:10)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분이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하고 유익을 줄 수 있는지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그 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그 분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초청하십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돌지마라"(잠22:17)라고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마음 즉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지혜를 만드는 힘은 바로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성공자,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은 세상에서 쌓은 스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지혜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능력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위대한 비밀입니다. goodtreeusa@gmail.com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1>서부(CA) 교회안내</h1>					
남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씀성경(월-금): 오전 5: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영어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5:45(토)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머무는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양)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 오후 7:30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주일학교: 오전 6:00(토)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토)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화전교회 협동목사 생애(월-금) 오전 9:45(분당) 사역장: 1. 영회사역장 2. 목회상담 3. 가정사역 4. 해외사역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교회기독교: 3955 24시간 오픈	주님새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회: 오후 7:20(금)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금요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분당) E.M. 예배: 오전 9:45(101분당)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M성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 (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	핼(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 이훈우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헌양예배: 오후 1:00 교육부: 오전 11:00	히슬소망교회 담임목사 : 김택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주일학교: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영성경 읽어주세요' 오전 9:30 오후 7:0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목회서신

파이널 할 것인가, 피날레 할 것인가?



강인국 목사 (미시야나한인교회)

가을이 지나갔다. 이번 가을은 유난히 단풍의 색깔이 진하고 아름다웠다. 타지에서 우리를 방문한 어떤 목사님 부부는 이 지역의 단풍들은 원래부터 이렇게 아름다웠느냐며 길가의 단풍들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하였다. 핏빛같이 붉은 나뭇잎들, 열대어 물고기처럼 색노란 단풍들과 형형색색의 선명한 색깔을 가진 단풍들이 앞 뒤 뜰 위에 웅덩이처럼 내려앉았다.

그런데, 어떤 나뭇잎들은 그냥 거무죽죽한 색깔로 변하며 떨어졌다. 그 나뭇잎들도 자신들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낙엽이 되었겠지만 이왕 낙엽이 될 바엔 화려한 단풍이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도 하고 클라이맥스가 되기도 한다. 불꽃놀이에서는 한 번에 두 서너 개의 불꽃을 쏘아 올리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수십 개의 불꽃을 한꺼번에 쏘아 올리며 화려하고 장엄하게 피날레를 장식한다. 올림픽축하공연장에서는 한 명 또는 한 그룹이 무대 위에 나와서 공연하다가 공연 마지막 무대에서는 그동안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을 나오게 하여서 감사하고 격려하며 함께 노래하며 춤추어서 멋진 축제로 피날레 한다.

세기연 주최 제6회 신앙도서독후감 공모 수상자 발표

최우수상: 송정임 사모, 우수상 김봉춘 선교사, 장려상: 손문식 전도사, 한원 권사, 전효진 사모

세계한인기독교인연합회(세기연, 회장 조명환 목사)가 주관한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에서 최우수상에 버지니아 거주 송정임 사모(세인트 존스 UMC), 우수상엔 김봉춘 선교사(몽골 베다니마울교회), 그리고 장려상에는 손문식 전도사(은혜한인교회), 한원 권사(산호세 임마누엘 교회), 전효진 사모(에틀란타한인교회)가 각각 차지했다.

를 시작해 지난 10월 31일로 접수를 마감하고 심사를 거쳐 지난 11월 20일 세기연 화상 임원회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금년의 추천도서는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저자 신영), '모두 거짓말을 한다'(세스 스티븐슨 다비드워츠), '짐목'(앤드 슈사쿠), '말그릇'(김윤나), '뚝뚝한 사람들의 명칭한 선택'(리처드 탈러) 등 5 권으로서 주로 인문학 분야의 저서들이 추천도서로 지정되었다.

등 골고루 참여했으며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피츠버그, 라스베가스, 애틀랜타, 워싱턴 지역에서, 그리고 미국 외에서는 몽골, 브라질, 파라과이에서 작품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백 목사는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응모된 추천도서 선정에서 한 쪽으로 쏠리는 현상도 일어났다"고 평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2월 10일(목) 독일, 호주, 브라질 등 해외 회원사들도 참석하는 세기연 정기총회를 겸해 줌을 이용한 화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수상자들에게는 모두 개별 통지되며 수상자들은 줌으로 시상식에 참가하면 된다(시간 추후 발표). 이날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달러와 상장, 우수상에는 300달러 상금과 상장, 그리고 장려상엔 200달러와 상장이 전달된다. >문의: (213)663-4340 (이성자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 공개포럼에서 강사들과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위기를 기회로...교회본질과 공동체성 회복

'포스트코로나시대와 교회의 미래' 공개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란 제목으로 열린 공개포럼이 지난 11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미주성서화운동본부(공동대표회장 송정명, 진유철 목사) 주최로 새생명 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으로 열린 이날 공개포럼에서 12명의 발표자들은 코로나로 모두 위기가운데 빠져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알고 교회의 본질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인들이 고난 받는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었다며 "교회는 코로나와 같은 위기 속에서 사회 윤리적 책임에 더 민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준비하는 이민교회' 주제로 발표에 나선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는)는 자신이 목회하는 아름다운교회의 실황을 영상사역자 키우기, 수요일에 주보발송, 우표 붙인 현금반송봉투 발송, 일 본교회 개척, 인터넷으로 선교사 네트워크 등에 대해 소개하며 현금도 20%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팬데믹 역습과 포스트코로나시대'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상명 총장(미주 장신대)은 "인류 문명의 변곡점을 이룬 3가지 큰 사건은 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산업혁명"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되지 않으면 더 엄청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온라인 사회로 가속화 되는 변화를 Digital Transformation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온라인 시대는 '함께' 이면서 동시에 '홀로'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창조신학

으로 대변되는 녹색은총과 십자가신학을 대변하는 적색은총으로 위기를 넘어야한다"고 말했다. △'포스트코로나시대와 미래사회'란 제목으로 강연에 나선 김 사무엘 박사(인공지능과학자)는 "두려움을 넘어 공동체 세우기"를 강조했다. 김 박사는 "인공지능, 4차 산업, 이런 말들을 계속 있어왔다.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고 하셨다.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의 자리에 공동체(교회, 이웃)를 세워야 한다. 탐욕을 깨뜨리고 직분에 대한 컨셉을 회복해야 공동체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선교'란 강연에서 이상훈 박사(미성대학교 총장)는 "지금 우리는 생존의 문제보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기회를 얻은 것"이라며 "첫째, 새 패러다임 요구 둘째, 사람에게 집중하는 선교 셋째, 공동체적 선교의 중요성 넷째, 선교사 중심에서 현지인 중심으로 다섯째, 온라인 사역의 중요성 여섯째, 네트워크를 통한 사역으로 변화" 등을 강조했다. △박동식 교수(미주장신대 조직신학)는 '포스트코로나시대 교회의 존재이유'란 주제의 발표에서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예배의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다. 예배당에 가는 것과 같다. 온라인예배에서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 가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경 교수(월드미션대학교 상담학)는 '포스트코로나

문을 나서면서 생각한다. "오늘 예배 마침내 끝마쳤어, 내 할일 다 했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날 들은 메시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 성도는 파이널의 삶이 아니라 피날레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성도가 예배나 성경공부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면 그것은 파이널의 삶이다. 하지만 성도가 주일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메시지를 내 삶속에서 실천하고 주위를 향하여 사랑과 기쁨을 퍼 나를 때 그것은 멋진 피날레의 삶이 된다. 성도는 성경의 메시지를 자신의 언어와 삶을 통해서 주위를 밝고 따뜻함이 넘치는 축복으로 귀결시켜야한다. 그리고 성도는 공적 자리에서 은퇴한 후에는 약한 사람이나 선교지를 돕고 위로하는 일들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은은한 단풍같이 피날레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다.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달려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계의 중심지이요 핍박의 소굴인 로마에 가서 복음

을 전하다가 핏빛같이 혼을 불태우며 자신을 삶을 피날레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일생동안 순수하게 열심을 다해 수고하다가 그 끝을 아름답게 피날레하지 못하고 끝내는 경우도 많다. 성도는 무엇보다 마지막을 더 멋있게 피날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 해는 코비드로 인하여 우리 일생 어떤 해보다 독특한 해였고 수많은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으로 얼룩진 해였다. 나무가 아픔과 시련을 강하게 경험할수록 나뭇잎은 더 아름다운 단풍 색깔을 가지는 것 같다. 이 해도 그냥 마지막으로 끝내지 말고 뭔가 멋있게 피날레 할 것을 찾아보고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떤가? 예수님은 일생 동안 생명의 나무가 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초청해서 자신의 품안에서 쉬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붉은 피를 흘리시면서 인간구원의 대대원을 피날레 하셨다.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소모되

어 없어진다. 우리의 육신은 시간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파이널 되든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을 다해서 피날레 하든지 할 것이다. 우리의 삶을 단순히 파이널 할 것인가 피날레 할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 기도 하다. 성도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성도는 생명의 불꽃이 다 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을 퍼뜨리고 사랑과 기쁨을 나누고, 영혼을 구원하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 하면서 자신과 함께 헌신적으로 수고한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감사하고 격려하며 갑갑한 밤에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영광을 쏘아 올리며 로마서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무대에서 우리와 함께 인생의 무대를 꾸며 온 사람들을 초청해서 감사와 격려를 하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쏘아 올리며 한바탕 멋진 축제로 피날레하면 얼마나 좋을까? cyd777@hotmail.com



남가주 한인정치인 당선축하 감사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남가주 한인정치인 당선축하 감사예배

6명 중 미셀박스틸, 영김, 최석호, 프레드정 참석

지난 11월 3일 실시된 선거에서 남가주 지역에 미셀박스틸(48지구 연방하원), 영김(39지구 연방하원), 데이브민(37지구 거주상원), 최석호(68지구 거주하원), 테미김(앨버틴시), 프레드정(플러턴시) 등 6명의 한인 이 당선되는 쾌거를 이뤄 이를 위한 축하예배가 11월 28일 오전 11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정원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는 6명의 당선인 중 미셀박스틸, 영김, 최석호, 프레드정 당선인 등 4명이 참석했

다. 최석호 의원은 "기도해주신 분들께 감사한다"며 "우리가 소수민족이지만 청교도정신을 이어받는다면 언젠가 백악관에 한인이 들어갈 날이 올 것"이라 말했다. 그는 "1월 13일 미주한인의 날, 8월 15일 광복절을 중심으로 거주전체 한인지도자들 모아 결속하는 행사를 해왔다. 아리랑의 날, 도산 안창호의 날, 유관순의 날, 김영옥 대령의 날, 임양아 시민권 부여 법안을 통과하게 했다. 앞으로 월남전참

전용사들이 거주 공동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하는 것, 한의사 지위문제, 보험관련사항 등 할 일이 산적해있다. 데이빗민 상원의원과 협력해 한인권익 신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미셀박스틸 의원은 "믿음의 동지들의 도움에 보답하고자 2년간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영김 의원은 "이번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닌 한인커뮤니티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라며 "의정활동, 연방의회에서 39 지역 지역주민과 한인커뮤니티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프레드정 의원은 "5살 때 이민 왔다"며 "어머니의 기도와 가르침대로 정직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승기 목사(미기총 대표회장) 사회로 열린 감사예배는 김대규 목사(은혜한인교회)가 찬양 인도했으며 박상목 목사(OC교회회장)가 대표기도 한 뒤 한기홍 목사(대회장, 은혜한인교회 담임)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지도자가 되자'(사33:13)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송정명 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대표회장)가 축도했다. 이날 집사(은혜한인교회)가 축가를 불렀으며 박경재 LA총영사, 권석대 OC한인회장의 축사에 이어 당선인 감사의 말과 답사로 진행됐다. 이날 모든 순서는 한기홍 목사(남가주교회 협회 회장) 폐회 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적대각성 온라인 부흥회 첫날 집회에서 한기홍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영적대각성 온라인 부흥회

자마 & 청교도 400주년 준비위원회 주최

자마(대표 강순영 목사)와 청교도 400주년 준비위원회(대표 한기홍 목사)가 주최한 영적대각성 온라인 부흥회가 지난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부흥회는 청교도 미국이주 400주년을 맞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사60:1)'라는 주제로 하미주 각 지역 교협 협력으로 전국적으로 열렸는데 6일간 매일 새벽에 2개의 설교를 유튜브(www.youtube.com/user/JAMAMedia2)로 올리면 개인별로 새벽 5시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영상으로 참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16일 첫 집회에서 청교도

400주년 온라인 부흥회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는 "청교도들은 미국에 와서 가장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신앙모범과 전통을 남겼고,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나라를 건설했다. 그러나 근래에 미국이 청교도신앙을 버린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청교도 미국이주 400주년으로 전국적으로 열렸는데 6일간 매일 새벽에 2개의 설교를 유튜브(www.youtube.com/user/JAMAMedia2)로 올리면 개인별로 새벽 5시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영상으로 참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16일 첫 집회에서 청교도

3:15-1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로 축복하신 이유는 청교도들의 신앙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며 "오늘날 미국에 꼭 필요한 것은 청교도 신앙회복이다. 청교도들의 영향력, 청교도들의 신앙유산 가운데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 그들의 '성경사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집회는 △1일 '우리가 제2의 청교도가 되어야 합니다'(한기홍 목사)와 '청교도 그들은 누구인가?'(허연행 목사) △2일 '청교도 예배회복과 주일성수'(이성철 목사)와 '청교도의 자녀교육과 가정'(위성교 목사) △3일 '청교도의 감사생활'(강민수 목사)와 '청교도가 세운 위대한 나라'(위성교 목사) △4일 '청교도의 기도생활'(호성기 목사)와 '청교도의 거룩한 삶의 추구와 성령충만'(진유철 목사) △5일 '청교도 일터에서의 삶-직업관'(양춘길 목사)와 '청교도 재정관리-유산 상속'(이은상 목사) △6일 '청교도 교육과 회복'(김준근 교수)와 '청교도의 가정예배'(권준 목사)가 말씀을 각각 전했다. (박준호 기자)

교계 게시판

뉴욕교협 임실행위 및 준비기도회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문석호 목사) 제 47회기 1차 임실행위위원회 및 신년하례회를 위한 준비기도회가 12월 10일(목) 오전 10시 30분 뉴욕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서 열렸다.

▲문의: (646)520-7667(총무 한기술 목사)

뉴저지한인목사회 사서함 주소 변경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이의철 목사) 사서함 주소가 변경됐다. 새 주소는 P.O.Box 584, Ridgefield, NJ 07657. 뉴저지목사회는 코비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를 돕기 위한 사랑 나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문의: (201)919-2865 총무 김주동 목사

자녀회복학교 TEENZ HMMS

낮은울타리 미주본부(대표간사: 조희창 목사)가 연말 N세대 자녀들을 위한 '자녀회복학교 TEENZ HMMS'를 영어과정으로 연다. 일시는 11월 30일부터 1월 4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9시까지(미주동부시간) 6주간 진행된다. 대상은 6학년부부터 12학년까지이다.

영어권 사역자의 인도로 영어로 진행되며 등록비는 60달러. <https://forms.gle/DL4MMLMqn7cRaQN5>

▲문의: (646)300-4790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020 해외아동결연 후원자의 날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신뢰받은 미션NGO로 책임 다하겠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020 해외아동결연 후원자의 날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020 해외아동결연 후원자의 날 행사가 11월 25일 오전 10시 30분 뉴욕에베넬선교교회(담임 최창섭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팬데믹으로 후원자 모두를 초청하지 못했으며 행사내용은 웹사이트(www.eafh.org)에 올린 유튜브 동영상상을 통해 볼 수 있다.

팬데믹으로 11월 월례대회와 함께 열린 이날 회장 권캐더린 목사는 “후원자들의 손길을 통해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다”며 “우리 섬김을 통해 더 많은 이웃들이 사랑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면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요?”라고 묻고 “지난 13년간 후원자들이 나눔과 격려에 힘입어 한 생명을 향한 섬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정직과 순수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받은 미션 NGO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1부 예배는 임마누엘찬양팀(퀸즈성령강림교회) 경배와 찬양에 이어 유상열 목사(삼일교) 인도로 기도 전회수 목사(삼일교문), 설교 최창섭 목사(자문위원), 축도 박진하 목사(삼일교문) 순서로 진행됐다. 최창섭 목사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전11: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세상 원리는 주고 받는 것이지만 성경 원리는 계속 주라는 것이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 생명을 주셨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드리거나 구제, 선교할

때는 인색함 없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본문에 비취 구제하는 태도에 대해 “첫째, 구제하고 잊어버리라(던졌다) 둘째, 많은 사람에게 계속하라(일곱 여덟 명) 셋째, 할 수 있을 때 하라(그날 재앙이 오면 못한다)”고 말했다.

2부 사역소개는 권캐더린 목사 사화로 축복송을 부른 뒤 이사장 인사 장석진 목사, 사역보고 박이스라엘 목사(사무총장), 회장 인사, 축사 방지각 목사(자문위원), 문석호 목사(뉴욕교협회장), 격려사 양민석 목사(자문위원), 후원안내 육민호 목사(홍보국장), 현금송 뉴옥크로마하프스교단, 현금기도 임병남 목사(기회국장), 폐회 및 오찬기도 김희복 목사(뉴욕교협 부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사역소개에서 사무총장 박이스라엘 목사는 “해외아동결연사업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오히려 지난해보다 확대됐으며,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 지역 학교건축을 위해 1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남미와 아프리카에 108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한 아동 후원비 월 30달러).

이번 후원자의 날에서 모금된 현금은 과테말라 전기가 없는 섬지역인 엘치포마을, 엘사다이교회의 태양열 발전기 설치를 후원하게 된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새 회장 이병홍 목사 부회장 김원기 목사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정기총회, 총무 이재덕 목사유임

뉴욕한인교회협의회 증경회장단 정기총회가 11월 24일 오전 11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려 신임회장에 이병홍 목사, 부회장에 김원기 목사가 선출됐다.

회장 이병홍 목사는 “증경회장단은 현 임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문하는 기관일 뿐 간섭하지 않는다”며 교협 요청이 있을 때만 자문하고 회원들 건강에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인사했다.

부회장 김원기 목사는 참석하지 못했으며 총무는 이재덕 목사가 유임됐다.

회장 김원기 목사 사화로 진행된 2부 회의는 김홍석 목사의 개회기도에 이어 회원점명과 축사, 선거가 진행됐다.

문석호 목사는 “증경회장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한다”며 “요즘 잡언을 보며 지혜를 배우려 한다. 증경회장님들이 영혼을 살려 삶이 행복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되길 바라며, 자존감을 갖고 건강하셔서 후배들을 위해 활동해달라”고 축사했다.

이날 선거는 부회장 이병홍 목사가 연례대로 박수로 추대됐다.

부회장은 기수별로 하자는 의견과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안으로 갈려 무기명 투표 결과

김원기 목사가 선출됐다.

한편 1부 예배는 이재덕 목사 인도로 기도 김승희 목사, 설교 이병홍 목사, 축도 김용길 신부 순서로 진행됐다.

이병홍 목사는 “나그네의 본향”(히11:13-16)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 모두 이민 광야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나 그 가운데서도 훌륭하게 목회하고 은퇴한 증경회장들을 존경한다. 나그네 행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분향할 때까지 건강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달라”며 새 회기를 축복했다.

지난 회기 증경회장단은 팬데믹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한 교협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유원정 기자)

미주복음방송 무료나눔 이벤트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 무료나눔 이벤트가 21일 오전 10시 방송국 파킹장에서 열렸다. 이날 이벤트는 오렌지 카운티 푸드뱅크와 협업으로 진행됐다.

미주복음방송 알렉스유 집사(최고업무책임자)는 “무료나눔 이벤트가 5차례에 걸쳐 진행돼 왔다”며 “그동안 1000-1500파운드 분량의 음식을 나눠줬는데 오늘은 1500파운드 분량으로

“섬기는 교협, 하나 되는 교회”

뉴저지교협 제34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제34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이 11월 17일 오전 10시30분 뉴저지연합교회(담임 고한승 목사)에서 열렸다.

“섬기는 교협, 하나 되는 교회(막10:45)”를 표어로 내걸은 34회기 회장 이정환 목사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주님 말씀과 같이 섬기는 교협이라는 표어로 팬데믹 상황을 헤쳐 나가며 목사회, 장로연합회 등 기관단체와 연합해 뉴저지 교회, 목회자,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제34회기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정환 목사(뉴저지순복음교회) △부회장 고한승 목사(뉴저지연합교회), 육귀철 목사(주소원교회) △총무 김동권 목사(뉴저지새사람교회) △사무서기 최재형 목사(축복의교회) △기록서기 양혜진 목사(뉴저지길교회) △사무회계 김건일 장로(시온제일교회) △기록회계 최다니엘 사관(구세군) 임금우드한인교회).

직전 회장 장동신 목사는 개인 사정으로 한국에 가 동영상을 이임사를 전했다. 장 목사는 “회기 도중에 팬데믹 상황을 만나 참으로 쉽지 않은 회기를 보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노상석 이사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이사들이 적극

적으로 도와주어서 어려운 시기에 여러 사업이 가능하게 하셨다”고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춘섭 장로는 이정환 회장이 중단된 상태인 회관건립에 대해 언급하며 “힘든 시기에 장로들과 목사님들이 같이 힘과 뜻을 내어 교협역사에 하나의 큰 족적을 남기는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연합해 칭찬받는 이사회가 되고자 하여 이 자리에 섰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1부 예배는 부회장 고한승 목사 인도로 기도 정일권 장로(장로연합회 회장), 성경봉독 최재형 목사(사무서기), 찬양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 설교 유재도 목사(전 회장), 헌금기도 최다니엘 사관(기록회계), 현금송 여자목회자합창단, 축도 윤명호 목사(전 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이취임식은 김동권 목사 시화로 교협기 전달, 기도 홍인석 목사(전 회장), 이임사 장동신 목사(직전 회장), 취임사 회장 이정환 목사와 이사장 이춘섭 장로, 임원소개, 축사 문석호 목사(뉴욕교협 회장), 이의철 목사(뉴저지목사회 회장), 추가 정도진 최보람 성도, 직전 회장에게 공로패 증정, 폐회기도 김중국 목사(전 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저지교협 제34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김미경 대표가 비대면 성악경연대회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1등 테너 이희열(시카고 거주)

‘나도 성악가’ 비대면 성악경연대회 종료

주빌리뮤직아카데미(원장 김미경 사모, 온마음교회/담임 김중환 목사)가 주최한 ‘나도 성악가(Pan the Music Festival)’ 비대면 성악경연대회가 지난 11월 21일 오후 6시에 개최돼 1등에 시카고 거주 이희열 씨가 차지했다.

‘나도 성악가’는 ‘코비드 블루’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한 동기부여와 희망, 꿈을 부여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주최측은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2019년 Open Bank로부터 받은 ‘Open Stewardship Fund’ 2000달러를 시드머니로 몇 기업과 개인 사업가, 그리고 한국의 ‘명진 Metal&Hardware’에서 후원

금을 쾌척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3명의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 총 9명이 결선에 진출했지만 한 명은 부진상으로 인해 결선에 참여할 수 없었다.

지난 11월 21일 오후 6시(미서부시간), 줌으로 비대면 성악 경연대회를 시작해 실시간 연주는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됐다.

여덟 명의 아마추어 성악가들의 연주가 끝나고, 3명의 심사위원(①성악가&교수, 테너 박기천, 한국 ②성악가&전 성태에서 2019년 Open Bank로부터 받은 ‘Open Stewardship Fund’ 2000달러를 시드머니로 몇 기업과 개인 사업가, 그리고 한국의 ‘명진 Metal&Hardware’에서 후원

순위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결선에 오른 4명에게는 각 100달러의 상금이 주어졌다. 결선대회 때 성악가들의 연주 전후를 통한 간단한 인터뷰에서 ‘코비드 블루’로 인해 정서적으로 몹시 어려웠을 때 ‘나도 성악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음악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활력을 많이 얻었다는 고백이 있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살롱장로교회, 결혼, 베이비 샤워 등 축하파티

살롱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는 팬데믹 가운데서도 여전도회 주최로 결혼과 출산 축하파티를 열었다. 최근 결혼한 김민석 김수연 커플과 유영진 서현지 목사 가정의 둘째로 태어난 수호 Luke(11월19일 해산), 그리고 처음 아이를 얻게 되는 청년회장 김현중 형제와 제이미 커플(12월4일 출산예정)을 위한 베이비 샤워 등이 진행됐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하고 마스크와 후원금을 전달했다. 예배 후 손순대 장로와 손옥아 권사가 따뜻한 터키와 음식으로 한인 노숙인들을 섬기고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나성균 목사는 “비록 팬데믹이라 모든 것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으나 귀한 자리를 마련해 준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동 교회는 농구대 야외 설치 등 교회 안팎 시설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며 팬데믹이 끝나 자유롭게 교우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사제공: 살롱장로교회)



온라인 밀알의 밤에서 이지선 교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감사함으로’ ...이지선 교수 간증

2020 온라인 밀알의 밤

온라인 밀알의 밤이 ‘감사함으로’라는 주제로 26일 오후 8시 유튜브 라이브, Facebook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진행됐다.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밀알의 밤은 이종희 목사가 기도했으며 수어찬양단이 찬양했다. 이종희 목사는 “온라인 밀알의 밤 할 수 있어 감사하다. 현상이 아니지만 어느 때보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지선이 사랑해”의 저자 이지선 한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간증했다.

이지선 교수는 영상을 통해 “돌이켜보니 그 고난의 시간이 영영 못 빠져나올 ‘동굴’이 아니라 여동 너머로 새로운 서광이 비춰지는 ‘터널’이었다”며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가의 마

음으로 손으로 전해지는 거 같다. 사고난지 20년이 지났다. 감사한 것을 찾았기에 영원히 캄캄한 밤을 지나는 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들의 삶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을지라도 내게 있는 감사하는 것들을 찾았다면, 그리고 나에게 전해진 응원의 메시지들을 내 응원이 필요한 자에게 전달할 때 어려움을 이기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종희 단장과 스텝들이 척추이분증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밀알장학생 폴신 형제(Santa Monica College 재학)를 방문해 장학금을 전달하는 영상이 소개됐다.

이날 밀알의 밤은 찬양팀의 찬양과 이종희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29)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한교회담임)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이들에게는 거대한 물질적 재화를 등에 지고 묘지에 들어간다는 것은 퇴폐적 본능인 금전욕의 산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의 삶을 살고자 했다(Max Weber,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p. 46).

청교도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가장 부끄러워했고, 나아가 청지기직 실패(?)로 보았다. 즉, 청교도들은 지금도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기보다는 교회와 선교기관, 대학 등에 기증하는 것을 최고 가치로 둔다. 그 결과 미국은 가장 많은 선교사 파송, 최고의 대학과 연구소 등을 갖게 되었다.

청교도들은 돈과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신을 위해 쓰고, 나머지는 모두 주의 일을 위해 사용하였다.

크리스천 기업가로서 대표적인 기부 인물인 석유향 록펠러(John D. Rockefeller)는 53세 때 회심 후 4,928개의 교회를 지었고, 시카고대학을 비롯한 24개의 대학, 또한 자선사업을 행하였다.

강철왕 카네기(Andrew Carnegie) 역시 소유를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 오히려 “부자들은 생전에 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재산의 90% 이상을 각종 교육사업과 사회사업 등에 거금을 기부한 당대 최고의 자선 사업가였다. 미국 전역에 무려 2천500개의 공공도서관을 지어 헌납했고, 8천대의 오르간을 기증했다. 카네기 공과대학도 설립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상속은 자식들의 재능과 에너지를 망치게 하는 것이다”라고 카네기가 주장했는데, 필자도 그의 의견에 적극 찬동한다.

6) 성경적 경제관(Biblical Economic View) 회복과 부흥 (2)부(富, Wealth)

청교도는 돈과 사유재산을 합법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부를 비록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인정했지만 종종 축복보다는 유혹으로 보았다. 그래서 플리머스 식민지의 사업들을 관장했던 로버트 쿠쉬먼(Robert Cushman)은 버지니아의 이주자들이 부를 추구하며 얼마나 추악하고 세속적이 되었는지를 말했다.

또한 뉴잉글랜드의 제 1세대 청교도들은 부를 경계했다. 총독 존 윈드롭(John Winthrop)은 맨스필드라는 매사추세츠 이민자가 부유하게 되자 경건함을 잃었다고, 그의 저서 “1930-1649년의 뉴잉글랜드 역사”에서 기록했다.

특히 로저 윌리엄스(Roger Williams)는 부의 우려와 염려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의 부, 편안함, 자유, 명예, 쾌락 등에 가깝게 접근하면 할수록 초조함, 오만, 분노, 폭력도 더욱 가까워진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돈(재물)이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 가치중립(Value Neutrality)적인 것이라 사실이다. 바울 역시 “돈을 사모하는 것 일만 악의 뿌리”(딤후6:10)라고 했다. 그 돈을 쓰는 사람의 의도와 사용처에 따라 선하게도, 악하게도 된다는 것이다.

(3)부의 축적(Accumulation of Wealth)

중세 이전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재산의 축적을 죄악시 하였다면, 칼빈주의나 청교도의 전통 속에서 재산의 축적은 결코 세속적이거나 악한 것도 아니었다. 자신이 사용할 것 이상을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부를 축적하고, 그 근면함을 통하여 축적된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도 이론적으로 용납되었다.

농업이나 방직업을 하기에 너무 경쟁력이 없는 칼빈의 목회자였던 제네바가 살 수 있는 길은 정밀공업과 은행업의 발전을 통한 자본주의적 기업가의 자유로운 활동이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 금융주의적인 개신교의 윤리 이론이 활성화되었고, 이는 유럽과 영국으로 퍼져 나갔다. 신자들의 금융적인 생활이 수도원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과 기업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근면한 기업가와 노동자, 그리고 이들의 재산, 부의 축적은 세상 속에서 금융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갖는 당연한 결과이자 축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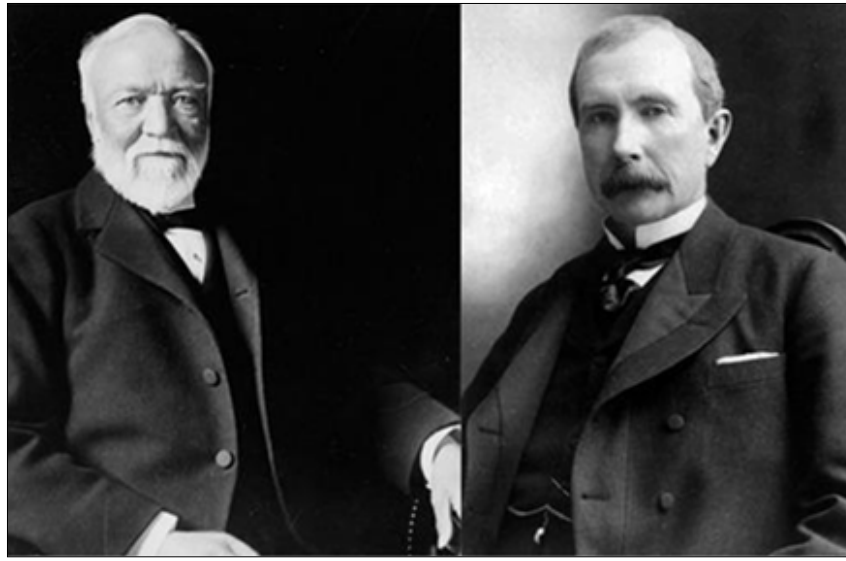
하나님을 경외, 충성하면 상을 받는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와 같이 재산을 이용해서 그 재산을 불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명령이다. 청교도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부와 자본이 축적되었다. 사업에 대한 헌신, 재산의 축적, 토지의 획득

主義, Pariah Capitalism)라고 부른다.

이 용어는 독일의 막스 베버(M. Weber)가 비합리적이거나 종교나 도덕적으로 비천하게 여겼던 생산 활동을 의미했으나, 현재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 탐욕적 자본주의를 가리킨다. 열심히 일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으나, 그 수입을 자신의 만족이나 탐욕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윤리와 영혼 구원에 맞게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거룩한 소명으로 서의 직업의식, 금융적이고 건설적인 자본주의가 사라졌다. 국제적 영역에서도 탐욕적인 신자유주의적 거대 자본과 다국적 기업은 이제 봉사과 공헌으로서의 자본주의

구제를 위한 시어(施與, 남에게 물건을 거저 줌)와 빛을 탐감하는 용서로 사용했다.” 그러나 그는 “당신은 자산을 잘 못해서 안된다. 일할 수 있으면서도 게으른 자는 그들 스스로 빵을 구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최고의 자선이다. 게으른 자와 거지는 다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들을 굶게 하라”라고 했다.



카네기(Andrew Carnegie)와 록펠러(John D. Rockefeller)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축복보다는 유혹으로 생각 청지기로서 구제와 기증함으로 선교와 교회운영에 도움

를 버린 지 오래이다. (4)구제(救濟, Relief) 루터는 사유 재산권은 인정했으나, 개인의 재산은 사람의 규범 즉 이웃을 위한 봉사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요한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은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다.”

코튼 매더(Cotton Mather, 1663-1728)는 “청교도 대상인들은 잉여생산을 경건하게 사용했다. 그들은 공과금의 지불, 사업자금의 대부, 가난한 자의

그렇다. 구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3:10)고 한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게으름과 나태로 인한 가난”은 청교도 초기 공동체에서는 사회적으로 거부되었다. 즉 청교도들은 일할 수 있는데도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것을 가장 경멸하고, 큰 죄로 보았다.

(5)기증(Donation) 청교도들은 상당한 재산이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적수공권(赤手空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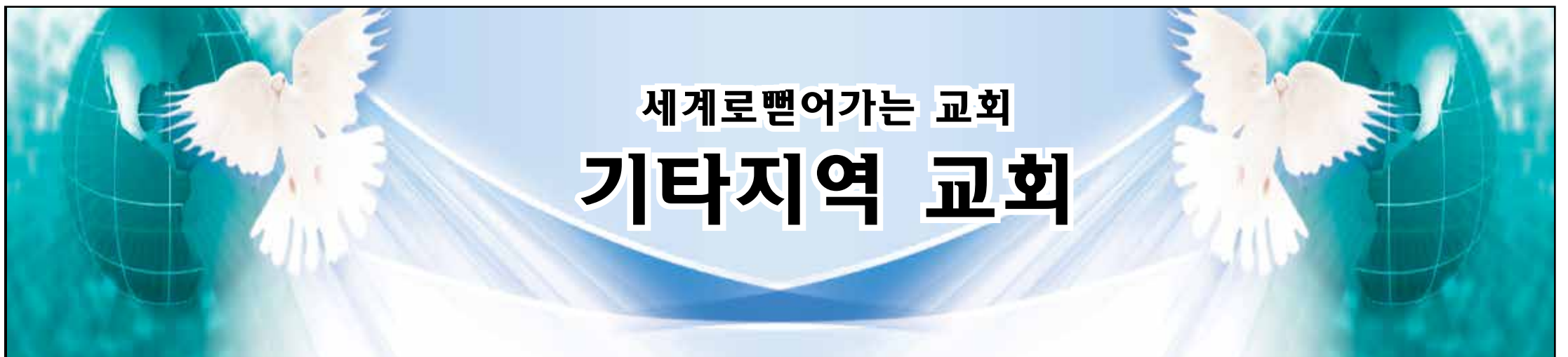
님의 것이었다. 내 자신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 따라서 일하며 벌고 쓰는 모든 것에 철저히 내가 배제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올바른 청지기 자세이다.

감리교의 창설자 요한 웨슬레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를 위해 쓰라”고 권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웨슬레(John Wesley)는 저술이나 강연으로 자신의 수입이 많아진 후에 도 과거와 같은 액수의 돈을 자

도 정신이 살아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임종 시 부동산과 현금을 교회에 기증함으로써 넉넉히 세계 선교와 교회 운영에 귀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1776년 미국의 독립이 청교도들의 언약사상과 그 윤리에 입각하여 세워졌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청교도 미국이 주 400주년을 맞아 교회와 성도들은 진정 성경적 경제관으로 반드시 회복, 부흥되어야만 한다.

그러서 지금도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 살아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임종 시 부동산과 현금을 교회에 기증함으로써 넉넉히 세계 선교와 교회 운영에 귀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1776년 미국의 독립이 청교도들의 언약사상과 그 윤리에 입각하여 세워졌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청교도 미국이 주 400주년을 맞아 교회와 성도들은 진정 성경적 경제관으로 반드시 회복, 부흥되어야만 한다.

kimjoyh@gmail.com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명 아 세 배: 오전 10: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461-1235,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AR 19057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화):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화):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화):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전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410)461-1235, Fax: (410)344-3182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살롱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주일 새벽기도회: 새벽 6: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 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아, 유년, 유년부: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7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03)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김형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EM) 수요일찬양: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804)560-7500, www.jjk.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 기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m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

2021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 출범 예배

내년 부활절 연합예배는 4월 4일 서울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드린다. 주제는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롬1:4)다.

2021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대회장 소강석 목사) 준비위원회는 23일 서울 강남구 대 한예수교장로회(예정) 합동 총회 회관에서 출범 예배를 드리며 이같이 밝혔다.

소강석 목사는 인사말에서 “내년 부활절 연합예배는 부활의 빛으로 하나 되는 예배, 한국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예배, 반기독교적 악법을 교계가 하

나 돼 막는 예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공교회 중심’ ‘부활절 연합’ ‘예배 중심’ ‘공정성과 투명성’을 예배의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3-1차 임원회의를 열어 소강석 예상합동 총회장, 이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장종현 예상백석 총회장을 차기 대표회장단에 선임했다. 신입 대표회장단은 다음 달 3일 한교총 제4회 총회에서 취임한다. 임기는 1년

이다.

한교총은 이날 차기 총회에서 ‘한국교회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교계 연합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예상합동과 예상통합이 각각 의안으로 상정한 ‘연합기관통합추진위원회’와 ‘한국교회발전연구위원회’ 설치·구성의 건을 토대로 구성됐다.

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조재호 목사)와 사회정책위원회(위원장 오정호 목사) 등 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도 배정했다. 여성위원회를 신설하고 조만간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 성격의 ‘차별금지법대응위원회’와 ‘종교인교세관련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총신대 정상화’ 안건 상정이 무산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 이유는 ‘학내사태와 관련된 전·현직 재단 이사들의 정이사 선임’에 대한 우려였다.

이요한 원우회장은 “학생들은 조속한 정상화와 이를 위한 정이사 체제 복구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전·현직 재단 이사가 정이사로 선임된다면 또다시 혼란이 초래되고 이름뿐인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강석 예상합동 총회장은 “학생들이 총신대 사태를 통해 겪었던 아픔을 깊이 이해하기에 우려할 만한 인사들을 모두 배제하고 건학이념과 설립정신을 지킬 비정치적 인사를 추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청문회 전까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대화의 창구를 마련해 협력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를 통해 교육부가 정이사 체제 전환을 결정하면 총신대는 정이사 선임 절차를 밟게 된다. 사분위가 총신대, 예상합동 총회, 전·현직이사협의체, 교육부 등 4개 기관에 정이사 후보자 추천을 통보하고 해당 기관에서 2배수로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다.

설명하고 식당, 타 종교 등과 동등하게 법과 행정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진실 어린 설득의 결과 경남도가 행정지침을 융통성 있게 바꿨고 교회는 예배를 지속할 수 있었다”면서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교회까지 과도한 요구를 하면 연합회 차원의 설득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명진 성신생명윤리연구소장은 “예배는 성도들 영혼에 산소와 같은데, 하나님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고 계신다”면서 “위기와 고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의 사인을 바라보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장총 대표회장에 김종준 목사

“장로교단 연합 이끌겠다”...한영훈 목사 상임회장 선임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가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38회 정기총회를 열고 상임회장 김종준 목사를 대표회장에 추대했다. 한장총은 상임회장을 박수로 대표회장에 추대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정) 합동 총회장을 역임한 김 목사는 서울 노원구 꽃동산교회 담임 목사로 서울 동산고 이사장과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장을 맡

고 있다. 김 목사는 취임사에서 “장로교단 연합을 위해 말씀과 기도운동에 힘쓰겠다”면서 “장로교의 날’ 행사도 더욱 활성화해 장로교 연합과 일치 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기 중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회원 교단 공동의 지혜를 모으겠다”면서 “이를 위해 교회 교육 전문인력 확보 등 교육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장총은 한영훈 서울

한영대학교회 목사를 상임회장에 선임했다. 예상한영 총회장을 지낸 한 목사는 한영대 총장과 한국기독교부흥사단총연합회 중앙회장을 맡고 있다.

한장총은 수도권 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총회 참석자 수를 제한했다. 198명의 총대 중 66명만 참석했으며, 88명이 위임장을 제출해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

한장총은 예상합동과 통합, 백석을 비롯한 국내 26개 장로교단의 연합체로 1981년 창립한 한국장로교협의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총신대 ‘정이사 체제’ 로 복귀하나…

내달 21일 ‘정관개정’ 필수요건 청문회 열고 최종 점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다음 달 21일 청문회를 열고 임시이사 체제인 총신대(총장 이재서)의 정이사 체제 전환 가능성을 최종 점검한다. 사분위는 지난 23일 열린 제177차 회의에서 ‘총신대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논의하고 청문대상자를 결정했다. 대상자는 학생대표 2인(총학생회, 신학대학원 원외회 대표 각 1인), 총신대 총장, 대학평의원회 의장, 대한예수교장로회(예정) 합동 총회 대표 2인, 전·현직이사협의체 대표 2인이다.

정이사 체제 복귀는 총신대 사태의 원인이 된 ‘학교 정관’을 바로잡기 위한 선결과제다. 총신대는 김영우 전 총장 시절인 2017년 9월 정관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를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한다’에서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한다’로 개정했다. 당시 임원 자격에 ‘총회 소속’을 삭제해 교단성과 설립정신을 저버

렸다는 비난을 받았고 총신 사태를 촉발하는 원인이 됐다.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지난 9월 해당 정관을 ‘본 총회에 소속된 세례교인 중에서 선임’으로 개정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시이사 체제에서는 설립목적 건학이념과 관련된 중요사항 변경이 불가하다는 게 이유였다. 학교 정상화의 마지막 단추가 될 ‘정관 개정’을 위해선 정이사 체제 복귀가 필수요건이다.

이재서 총장은 25일 국민일보 통화에서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되고 학사 운영이 정상궤도에 진입하는 등 학교가 안정됐다”며 “청문회가 정이사 체제 복귀와 학교 정상화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청문회에서 ‘정이사 체제 복귀’에 대해 한목소리가 나오느냐다. 총신대 총학생회와 신대원 원외회가 지난 10월 교육부에 정이사 체제 반대 의견을 제출하면서 제176차 사분위

“온라인예배 선호 이어지면 교회 본질 흔들”

교회언론회 포럼, 예배 회복 한목소리

한국교회언론회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시대의 참된 예배와 한국교회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코로나19 사태 속 철저한 방역과 함께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교계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

정장복 장로회신학대 명예교수는 발제에서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예배 선호가 늘어난다면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교회 본질과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예배 내용과 절차를 자

유자재로 변형시키는 일을 함부로 시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시대 성삼위일체 대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예배가 되도록 철저하고 섬세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패널로 나선 박정곤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은 “지난달 초 경남도가 비대면예배로 전환하라는 행정명령을 일방적으로 내렸다”면서 “이때 경남기총 목회자들이 도지사를 찾아가 교회의 영적 가치를 잘

플러난 이만희, 신천지 재결집 피해

보석 석방 후 내부결속 목적...모든 신도대상 사상검증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22일 전 신도 대상 교리 시험을 치르는 등 이만희 교주 보석 석방 이후 내부 결속과 포교 강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반사회적 사이버 집단 내부 정비 시간을 벌어주는 데다 이 교주의 건강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재덕 종말론사무소장은 19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신천지는 이 교주의 지시로 준비된 시험을 앞두고 뻣뻣한 일정 속에서 신도들에게 매일 문제 풀이와 모의고사를 치르게 하고 있다”면서 “시험 범위도 성경이 아닌 이 교주가 쓴 글 5편”이라고 밝혔다.

신천지는 최근 ‘말씀광장’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교리 전파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이 교주와 소속 지파장들의 교육 영상이 담

겼다. 신현욱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상담소장은 “신천지는 이 교주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 온·오프라인에서 조용하면서도 활발하게 포교 활동을 계속한다”며 “모락 전 도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교주는 지난 12일 보석 석방돼 휠체어를 타고 구치소를 나왔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한 그가 차량에서 혼자 걸어 내려 들어가는 모습이 한 언론에 포착되며 비난이 거셌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대표 신강식)는 이 교주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강식 대표는 “수감 중일 때 아파서 죽겠다고 했으면서 막상 구치소를 나와 사람들이

KPM 선교사 20년래 절반이상 은퇴

차세대 발굴 급하다...2박3일간 ‘2030 선교비전’ 논의

고신총회세계선교회(KPM·본부장 박영기 선교사)가 앞으로 10년간 최우선 과제로 선교 헌신자 동원을 거론했다. 점점 고령화되는 선교사 현실을 반영한 힘으로 예비 선교사 발굴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KPM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 대전 KPM 선교센터에서 정책 모임을 갖고 미래 선교전략 등을 논의했다. 특히 10년간 품고 갈 ‘2030 선교비전’이 논의됐는데, 여러 사안 가운데 미래 선교 일꾼 동원 및 훈련이 주요 과제였다.

KPM에 따르면 앞으로 20년 안에 KPM 소속 선교사들의 절반 이상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기준 KPM 소속 선교사는 480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52세였다. 20~30대

가 29명, 40대 154명, 50대 192명, 60대 102명이었다. 10년 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20~30대는 급감했고 60대는 급증했다.

KPM 관계자는 “20~30대 선교사보다 60대가 더 많은 것은 조급스러움 증대해 왔던 선교사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던 뜻”이라며 “미래 선교를 이끌 갈 잠재적 리더들이 젊은 세대를 위해 무얼 준비하고 강조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20년 안에 은퇴하는 인원이 301명이나 된다”며 “새로 헌신하는 선교사와 은퇴하는 선교사 사이 수적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이양받을 사 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했다.

최근 KPM이 조직 내에 동원

한국교회 주도 새로운 선교 사역 이끈다

오엠에스 코리아 선교회 창립

전 세계 75개국 50개 이상의 언어권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는 OMS(One Mission Society) 선교회의 한국 독립본부가 정식으 창립됐다.

오엠에스 코리아(이사장 원필연 목사)는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창립감사 예배를 드리고 두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세계 선교의 첫발을 땀다.

미국에 본부를 둔 OMS는 120여년 역사 동안 세계 선교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등이 상임이사국으로 참

여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 비서구권 국가 중 처음으로 상임이사국에 선임됐다.

초대 이사장 원필연 목사는 인사말에서 “지금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팬데믹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만, 교회는 새로운 헌신과 성령의 부흥이 가장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며 “OMS 역사를 넘어 새로운 선교 역사를 한국교회와 함께 만들어 가길 원한다”고 밝혔다.

곽선희 소망교회 원로목사는 ‘성윤신적 선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곽 목사는 모든 선교

의 모범이 되는 바울의 헌신과 개척 정신을 본받아 세계로 뻗어 나가는 오엠에스 코리아가 될 것을 당부했다.

오엠에스 코리아는 이지현 이미리 선교사 부부를 1호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들은 남태평양 피지에서 의료선교 사역을 할 예정이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한기재 목사는 축사에서 “OMS는 오랜 기간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쳤고 특히 한국 사역을 위해 헌신해 주셨다”며 “그분들의 열매가 성결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다. 오엠에스 코리아를 통해 선교가 세계에서 꽃피고 열매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아 생명권, 사회적 합의 절실”

한달남은 낙태법 개정 시한...프로라이프·복음법률가회 토론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 연말까지 낙태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가운데 낙태허용 시기와 사유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는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와 공동으로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 변호사회 교육문화관 세미나실에서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음선필 흥인대 법학과 교수는 ‘낙태죄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낙태죄의 본질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며 현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음 교수는 “국가는 헌법 제 10조 제2항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현재는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 조치를 하는 데 있어 인간 생명의 발달단계에 따

라 보호 정도나 수단을 달리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봤다”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착상 이후 발달과정에 있는 생명체에 대해 현실적으로 보호 수단이나 정도를 달리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생명체의 보호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규범적 근거로 내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낙태관련 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낙태허용 사유, 시기(임신 주수), 절차 등이다. 음 교수는 “특히 낙태를 어느 시기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낙태허용 근거인 사회·경제적 사유의 개념과 범위도 매우 모호해 객관적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국회는 입법의 민주성 요청에 따라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다수 국민의 의견을 확정한 후 입법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원치 않는 임신 을 예방하고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전윤성(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미국 변호사는 ‘낙태 개정에 수반될 수 있는 문제점: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발제에서 낙태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동시에 교육이 의무화됐다고 지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낙태 합법화 후인 2016년 공립학교 7-12학년(12-18세)에 종합적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캘리포니아주 아동·청소년 보건법을 제정했다.

전 변호사는 “성교육 강의와 교재가 동성애(성적지향)와 동성혼을 반드시 긍정적으로 인정하도록 의무화한 법”이라며 “성교육에 낙태도 포함했는데 낙태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하도록 했지만, 종교 교리에 대한 교육이나 옹호는 하지 못하게 했다(제2조)”고 덧붙였다. 낙태 반대나 태아의 생명권 보호 교육을 학교에서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전 변호사는 “1973년 낙태 합법화한 소송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내가 했던 역할을 후회한다”고 공개적 발언을 한 노마 매코비는 2017년 69세에 생을 마칠 때까지 생명의 소중함을 외쳤다”며 “그녀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선교의 창 (159)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선교 패러다임의 혁신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린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세상은 과연 어떻게 뒤바뀔 것인가? 미래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급변하는 세상에 변치 않는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악히 아는 바 지나간 2000년간 기독교 교회는 많은 희생을 감내하며 타민족 선교를 해왔다. 문제는 세계선교를 위해 크게 쓰임 받았던 초대교회와 서구교회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교회도 생물처럼 수명이 있다는 말인가? 만일 아니라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현용수 박사는 “교회가 수평선교만 하고 수직선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설파했다. 이는 정곡을 찌른 해안이다. 모름지기 거룩한 공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서 선교적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 선교 패러다임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교회가 기존의 수평선교를 지속하되 가정을 통한 수직선교가 진흥되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한인교회도 언젠가는 서구교회 궤적을 따라 쇠락해 갈 수밖에 없다. 아니 이미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1. 교회사의 아픈 현실

교회사를 돌아보면 안타까운 심정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한때 흥왕하던 교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쇠퇴하고 소멸하기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최초 선교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안디옥교회는 지금 사라지고 없다. 바울이 설립한 소아시아 교회들이나 마케도니아 교회들도 없어졌다. 오리겐과 어거스틴으로 대표되는 북아프리카 교회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활기찼던 동로마 교회는 회교의 중심지로 변했다.

한때 중유럽 바바리안들과 북유럽 바이킹들까지도 선교를 했던 서로마 교회는 살아있기는 하나 카톨릭 교회로 변질되었다. 칼빈이 태어난 프랑스나 그가 사역했던 스위스, 루터를 배출한 독일, 존 나스의 스코틀랜드, 존 웨슬리의 잉글랜드 등 당대 활화산처럼 개혁의 촛불을 들었던 서유럽 교회들을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제 서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명목상의 교인들(nominal Christians)로 주류를 이룬다.

청교도들이 건설한 북미주교회는 어떠한가? 20세기 중반 까지만 해도 지구 모든 나라들에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강력했지만 그 이후로 하나 둘씩 죽어가고 있다. 선교역사 135년 밖에 안된 한국교회도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급격

히 힘이 빠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6만여 교회중 앞으로 100년 후에까지 살아남을 교회는 몇 개나 될까?

2. 문제의 진단

“왜 기독교 교회는 세계선교에 불꽃을 점화했으면서도 정착 자기는 죽어 없어져야 했는가? 유대인은 비록 이방인 선교가 없다 할지라도 저들은 어떻게 4000년간 자손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데 성공했는가?” 일반적으로 교회는 탄생(Birth)-부흥(Growth)-결실(Fruition)-쇠퇴(Decline)-소멸(Death)의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은 보통 200-300년이다. 전 주기로 한다. 한 교회가 성장하여 결실기에 들어서면 타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자신은 사라져 간다. 그리고 새로이 복음을 받은 교회 역시 비슷한

은 일리가 있으나 근본적 진단이라고 할 수 없다. 그 핵심은 기독교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자손손 대물림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웃선교에 진력했기 때문이다.

3. 미션 패러다임의 상호성

현용수 박사에 의하면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두 가지 지상명령을 주셨다. 구약의 지상명령(창 18:19; 신 6:4-9)은 초립 메시야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함이고 신약의 지상명령(마 28:19-20, 행 1:8)은 초립하신 예수님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전자가 ‘세마’에 기초한 가정사역의 사명이라면 후자는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이웃전도와 세계선교의 사명이다”라고 했다. 전자는 부모가 가정이라는

왜 메시아인가를 배우고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부터 어떻게 자녀들을 제자 삼아 말씀을 전수할 수 있는가를 배우면 된다. 전자는 구원사적 접근이고 후자는 교육신학적 접근이다.

4. 혁신적인 대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종말의 때까지 존재하며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교회가 생물처럼 단명한다면 어떻게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까? 따라서 우리 한인교회는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맹목적으로 서구신학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말씀이다. 성경은 구약의 지상명령(창 18:19; 신 6:4-9)과 신약의 지상명령(마 28:19-20)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심정으로 자녀세

버렸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신약교회가 오래가지 못하고 자주 사라지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수하지 않고 그 책임을 교회에 떠넘기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세계선교의 진원지였던 소아시아와 유럽을 보라. 그곳에 다시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 아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언제까지 기독교 선교가 이렇게 지구촌을 뱅뱅 돌기만 할 것인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맺는 말

초대교회 죽었다. 유럽교회 다수가 죽었다. 미국교회 죽어가고 있다. 한국교회 죽기 시작했다. 교회가 이렇게 일정한 역할을 하다 소멸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핵심은 선교학의 부재이다. 지금까지 선교신학은 사마리아나 땅끝이라는 수평적 선교에만 귀착되어왔다. 그 결과 선교는 바람처럼 지구촌을 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직선교가 없는 수평선교는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안은 의외로 단순하다. 먼저 자손 대대로 말씀을 대물림 하는 수직선교의 기초 위에서 열방을 향한 수평 선교를 수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구약의 지상명령과 신약의 지상명령은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하고 생명이 길며 세계 복음화의 과업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의 뜻대로 결코 지역을 바꾸어가며 교회를 쓰신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무지와 무능 그리고 무책임 때문에 파생되는 결과를 하나님의 섭리로 합리화하는 신학을 과감히 배격해야 한다.

jrson007@hanmail.net

수직선교는 부모가 자녀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다.

수평선교는 교회가 타문화권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것이다.

이상적인 방향은 수직선교와 수평선교가 함께 병렬로 나아가는 것이다.

전철을 밟는다. 교회가 시대마다 부흥하고 쇠퇴한 데에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다.

선교학자 Herbert Kane은 북아프리카 교회가 몰락하고 이슬람화한 원인을 정치사회학과 선교학적으로 해석했다. Charles J. Speel은 북아프리카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강력한 기독교회가 이슬람 세력에 맥이 무너진 이 유를 정치와 종교의 합작품인 반달아리안주의(Vandal Arianism)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흐름은 교회의 흥망성쇠 현상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나 역사 개입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복음의 서진론으로 전개되며 장차 Back to Jerusalem 운동으로 종결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분석

성전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제자 삼는 일이라면 후자는 목회자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구원받은 이웃들을 말씀으로 제자 삼는 일이다. 구약의 지상명령이 혈통적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가정사역이 본질이라면 신약의 지상명령은 구원받은 교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사역이 본질이다. 전자가 수직선교라면 후자는 수평선교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직선교는 잘했지만 수평선교를 못했고 기독교인들은 수평선교는 잘하지만 수직선교를 못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독교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대를 선교해야 한다. 이 사역은 간단치 않다. 교회들이 각 가정의 부모들을 일깨워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녀를 신앙적으로 책임지게 해야 한다. 주일학교 선생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 성경공부하는 것으로는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적 열매를 소상히 보고 있지 않는가? 이를 위해 무엇보다 선교신학이 개발되어야 한다.

필리핀 세부성경대학 학장인 남후수박사는 “지금까지 선교학은 수평선교학이다. 선교의 정의도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그 커리큘럼도 모두 타민족, 타언어, 타문화 등을 중심으로 짜여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자기민족과 자기 자녀들을 잃어



드라마 에언서 (12)



김덕수 목사 (하늘소망교회 담임 / 생터사역원 LA지부장)

오늘은 다니엘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의 배경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바벨론으로 잡혀가서(단1:1) 바벨론이 멸망하고 세워진 메대바사의 왕 고레스 통치 3년까지의 기간 동안(단10:1)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BC 586년, 다니엘은 그가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땅에서 본국 남방유다의 멸망소식을 들었습니다. 남방유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실 것이 없어서 남방유다가 멸망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 사실을 다니엘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고 오는 모든 제국들의 역사를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훤히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세계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들은 지금 정계 받고 있는 중입니다(에레미야서의 내용).

다니엘서의 내용

왕족 혹은 귀족이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 하나냐(사드락), 미사엘(메삭)과 아사랴(아벳느고)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BC 605년(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단1:1-4).

다니엘서: 1-6장 실제역사 기록, 7-12장 일어날 일에 대한 묵시 기록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잡아간 소년들에게 왕궁의 음식을 먹이며,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왕궁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만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윤곽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소년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였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정한 교육기간인 3년이 지나고 모든 포로 교육생들이 왕 앞에 섰을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단연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고레스 왕 일년까지 왕궁에서 고위관리로

근무하였습니다(단1:17-21).

느부갓네살 왕 재위 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의 그 어떤 박사, 무당, 술객들도 그 꿈의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 수 없으니, 당연히 해석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었습니다(단2:1-30). 꿈의 내용은 ‘한 큰 신상(神像, a statue)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신상을 이루고 있던 각각의 재질들은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금머리는 느부갓네살(바벨론)이며, 그다음에는 느부갓네살보다 못한 은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며, 그 다음에는 놋쇠와 같은 나라, 그 다음에는 철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철과 같은 나라는 나뉘어져서 철과 흙이 섞인 발이 되는데,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뜨거운 돌이 그 모든 제국들을 쳐서 심판할 것입니다. 그 뜨인

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단2:36-45). 꿈의 내용과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꿈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나라인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상징하는 순금으로만 온몸을 만들어 놓은 신상을 제작하고, 두라 평지에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에 절을 하도록 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무도 그 글씨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벽에 쓰인 글씨를 읽고 해석합니다. “메네메네켈우바르신”,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끝나는 날까지를 다 세어보셨고, 벨사살을 저울에 달았더니 그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의 손으로 나누게 하신다’입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은 메대의 다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제국이 세워지는 장면입니다(단5:1-31).

다리오는 고위 공직자 배이십 명과 총리 세 명을 세워서 그들을 평소보다 일곱 배나 강력한 화력의 풀무불에 던졌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몸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묵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환상입니다. 다니엘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날 왕들입니다. 특별히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이며 그에게 있는 열 뿔은 열 명의 왕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지만,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 짐승들의 권세는 모두 빼앗기고, 모든 나라가 ‘예전부터 계시는 분’께 모든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를 받으신 인자 같은 분을 섬기며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단 7장).

다니엘은 벨사살 제위 삼년에 또 다시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봅니다(8장). 그 후 다니엘은 다리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 제국을 세운 원년에 바벨론에 잡혀왔던 유다포로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보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70년에 포로생활이 그칠 것이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단 9장). 또한 다니엘은 바사(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위 삼년에 본 환상은 ‘바사제국이 무너지고, 헬라(그리스) 제국이 일어날 것’에 관한 것입니다(단 10장). 또한 남방 왕과 북방 왕이 싸우게 되는 환상을 보았고, 마지막 날(말세의 때)에 일어날 징조에 관한 환상을 봅니다(단 12장). 그때를 기다리며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다음시간에는 에스겔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dsukim@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훈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시 5:2)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자세가 중요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해야 합니다(2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맹세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지 사랑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요!

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시5:3)

우리가 새벽에 기도한 후에는 반드시 기도의 결과를 기대해야 합니다. 3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과 “바라리라”는 것입니다. 풀잎이 말랐을 때보다 밤새 풀잎에 이슬이 맺혀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넘치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운택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후에 더욱 중요한 것은 기도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활을 쏘는 사람이 활을 쏘

후 그 활이 제대로 과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듯이 그리고 확실히 목표물에 정확히 쏘았는지 끝까지 보고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원문을 보면 내가 내 기도를 진열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바라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응답을 받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기까지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시5:4-6)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닦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악의 행태를 싫어하게 되고 이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드리게 됩니다. 악이 주와 함께 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 나에게도 있음을 발견하고 좋지 않은 것은 벗어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닦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시5:7-10)

기도하는 성도들은 항상 자신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히브리원문에 보면 7절 앞에 “나로 말하자면”이라는 말이 강조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로 말하자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갑니다”라고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But I, by your great mercy, will come into your house라고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특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 때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금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시5:11-12)

새벽기도의 축복은 결국 행동한 축복이 임할 것을 미리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11절).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시작은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결국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주시므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이라는 이 기초가 흔들리면 안됩니다. 오직 주님께 피하는 분은 결국은 다 기

뻐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주님의 보호로 영영히 기뻐 외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더욱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에게 복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의인의 기업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신 후에 만족해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토 여호와여 공홀히 여기소서(시6:1-2)

시6편은 총6편의 대표적인 “참회의 시” 중 맨 처음 나오는 시입니다. 본 시편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 시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참회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참회의 시”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견책과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는 자세로 나아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할 때가 많습니

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무조건 없애주기를 바라고 그 고난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하기 이전에 주님과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허물이나 잘못이 있으면 인정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달게 받겠사오니 분으로 견책하시 마옵시고 진노로 징계하지 마시고 공홀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공홀히 여기소서!

알기쉬운 IT칼럼



윤승준 (재미있는 IT 대표)

구글렌즈의 기막힌 기능

Zoomit을 사용하세요

오늘 원주 문막의 최저기온은 영하 4도입니다. 정말 얼마 만에 느끼는 영하의 기온인지 모르겠습니다. 창문을 열었다가 30초도 못 되어 닫았습니다. 물려드는 차가운 한기는 견디지 못할 정도의 추위로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 이후로 처음으로 내복이라는 것을 입었습니다. 바지만 입었는데 소위 에어가 들어있어 따뜻하다는 제품입니다.

5월 말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름내비가 왔습니다. 10월은 아주 좋은 가을이 계속 되더니 11월에 접어들자마자 겨울로 가는 느낌입니다. 여름과 겨울은 길어지고 봄, 가을은 짧아지는 현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4계절이 무슨 말인지 아이들이 모를까 쓸데없는 염려도 해 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동영상을 만들거나 강의의

Shift+PrtSc를 누르면 그 부분이 저장되는 Picpick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면 원하는 화면을 그래픽파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지시키려면 Esc를 누르면 됩니다. 즉 확대를 원하는 곳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Ctrl+1을 누르면 쉽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Ctrl+2를 누르면 화면에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Mouse를 움직이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때 색을 바꾸려면 Y: Yellow/R: Red/ B: Blue/P: Pink/G: Green/O: Orange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노랑, 빨강, 파랑, 핑크로 색을 바꾸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림을 지우려면 Esc 혹은 E를 누르면 그린 모든 그림을 지울 수 있고 Ctrl+Z를 누르면 최근 그림이 지워집니다. 물론 이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Tablet을 사용한다면 마우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교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블릿은 태블릿 컴퓨터가 아닌 그림을 그리는 도구인 태블릿을 말하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태블릿에 펜으로 그림을 그린다던 아주 효과적입니다. 펜의 두께를 조절하려면 마우스 Wheel을 돌리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W를 누르면 White Board가 될 것이고 K를 누르면 Blackboard가 됩니다. 사각형을 그리려면 Ctrl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드래그하면 됩니다. 원을 그리려면 Tab+마우스 드래

화면 확대하는 Zoomit 프로그램...그림도 그릴 수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고정적인 사고를 넓히는 것이고 아주 쉬운 것이니 꼭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지금 내게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공부하려는 자세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배우는 목적이 나만을 위함이 아닌 남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Zoomit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Zoom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면 화상통화의 대명사인 Zoom만을 영상하시는데 오늘의 내용은 화면을 확대하는 Zoom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유명한 Microsoft의 작품입니다.

Google에서 Zoomit을 다운로드도 받아 프로그램을 실행하십시오. 화면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이제부터 동작할 것입니다.

화면을 보며 Ctrl+1을 눌러 보십시오. Ctrl키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른다는 의미입니다. 예! 화면이 확대되었을 것입니다. 마우스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원하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마우스의 가운데 Wheel을 돌리면 더 확대되거나 축소됩니다.

원하는 곳을 찾아 원하는 크기로 만들고 Ctrl+S를 누르면 저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

그입니다. Shift+드래그는 직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Ctrl+Shift+드래그는 화살표입니다.

Ctrl+2 상태에서 T를 누르면 글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글은 안 되고 영어, 숫자를 쓸 수 있습니다. Ctrl+1은 화면확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화면은 정지화면입니다. 만일 내가 강의 중에 내 얼굴을 보이면서 확대하려면 Ctrl+4를 눌러야 합니다.

이것은 확대를 하면서 Live가 되는 기능입니다. 이때 확대를 중지하려면 Esc가 아닌 다시 한번 Ctrl+4를 눌러야 합니다.

Zoomit을 실행하려면 Zoomit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때 실행하면 화면 아래 부분의 꺾기를 눌러 Zoomit을 더블클릭하세요.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의 Run Zoomit when Windows starts를 체크해 놓으면 자동으로 Zoomit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강의를 하거나 동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 꼭 숙지하셔서 멋진 강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 더! 이 Zoomit을 한국 개발자들이 Modify한 아이캔줌잇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것은 T를 눌러 글자를 타이핑할 때 한글도 입력이 가능하도록 개량한 것입니다. 아이캔 줌잇을 네이버에서 찾아 다운받아 설치하세요.

siyoon7231@gmail.com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포드 예비부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릭사필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팬데믹 속 선교사들 위로 격려

웨이스선교회, 줌 화상미팅 선교보고

웨이스선교회(회장 전희수 목사, 사무총장 권케더린 목사)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중점사역인 세계가정 기도운동 및 선교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11월 29일 주일 오후 7시부터 줌 화상 미팅으로 임원들과 후원이사들, 선교사들이 모인 가운데 선교보고와 기도가 진행됐다.

웨이스선교회는 현재 6개국 7개 지역의 어머니기도회 개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2명씩 장학생을 선정해 후원하고 있다. 7개 지역 선교사는 탄자니아 정현 선교사, 엘살바도르 황은숙 선교사, 엘살바도르2 조정연 선교사,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 과테말라 박윤정 선교사, 파라과이 이명화 선교사, 네팔 새빛들이 선교사들이다.

이날 줌미팅은 사무총장 권케더린 목사 사회로 시작돼 회장 전희수 목사가 인사말을 했다.

전희수 목사는 팬데믹 속 어려운 상황가운데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로하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늘 기억한다고 했듯이, 우리들도 선교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기억해주시길 믿고 기도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내년엔 선교사들을 뉴욕에 초청해서 선교잔치를 준비하려 했는데, 팬데믹으로 이후 일정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상황 변화에 따라 빠르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후원이사 김홍석 목사의 기도 후 각 선교지의 선교 보고가 이어졌다.

탄자니아 정현 선교사는 "



웨이스선교회 선교보고가 줌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선교회 후원을 받아 어머니기도회를 계속 열고 있다"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집안에 우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기도회를 하며 변화돼 저를 불러 우상들을 태우고 비슷한 삶을 사는 현지인들에게 큰 도전을 줬다"고 보고했다.

엘살바도르 황은숙 선교사는 "9월부터 어머니기도회를 다시 시작했는데, 100명이 넘는 어머니와 아이들이 와서 놀랐다. 팬데믹의 어려운 기간 동안 가정들에게 생필품을 나누면서 마음의 문이 열려 결국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엘살바도르2 조정연 선교사는 "올해 1월부터 자녀들과 함께 하는 가정기도회를 시작했는데 팬데믹으로 3월까지밖에 못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성전을 건축해 지난 주

일에 입당했다. 이곳은 지방이라 크게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예배를 못 드려 걱정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음을 보았다"고 보고했다.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는 "콜롬비아 코로나19 확진률이 높아지고 있어 10월까지 메신저로만 기도모임을 하다가 11월부터 어머니기도회를 대

면으로 하기 시작했다. 선교회에서 전반기에 보내준 선교비로 기도회 참석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주었다. 12월 기도회는 성탄절을 앞두고 위로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과테말라 박윤정 선교사는 "어머니기도회는 매주 토요일 20여명 모여 기도하고 있다. 10월부터 모든 것을 오픈한 상태다. 여전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교 외에는 모두 문을 다 열고 있는 상황이다. 10월부터 예배도 허락했는데 아직 실내에서는 못드리고 야외에서 드린다. 선교회에서 지원해주는 2명의 장학생은 팬데믹 상황가운데서도 공부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믿음선교회를 통한 열

을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안정되고 평안한 교회라 할지라도, 이단의 공격과 세속적인 자들로 인해 연합이 깨어지고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 각 교회에 침투하여 악한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신천지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성도가 허다하다.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 바르게 목양 받으려면 반드시 교파와 교단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한다. 교회는 성도의 신앙적 양육을 돕는 영적 울타리다. 이와 유사하게 교단은 교회와 목회자를 세속화의 물결로부터 막아주는 영적 울타리이다. 타 교파 또는 교단에 속한 교회로 전입하는 경우, 전에 다니던 교회의 행정체계와 성경 해석의 방향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의 신앙노선을 자세히 알아본 뒤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특정 교회를 정하여 등록하였다는 것은 그 교회의 신앙노선을 반드시 따를 것으로 결심하였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covenantcho@yahoo.com

매"라고 보고했다. 파라과이 이명화 선교사는 "지난 모임을 코로나가 10배 이상 확산됐다. 모든 것이 잦아들때 경제가 어려워 공무원 월급을 못주고 생필품 가격도 올랐다. 정부에서 50명까지 예배를 허락했다. 어머니기도회는 아직 많이 참석은 못하지만 뜨겁게 기도하며 참석자에게는 마스크 등 방역용품을 선물로 주고 있다"고 보고했다.

네팔 새빛들이 선교사는 "네팔의 코로나 상황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힘들다. 선교회 지원으로 어머니기도회는 매주 모여 기도하고 있다. 일을 하지 못해 어려운 성도들이 너무 많다. 현지인들의 자립을 위해 염소와 닭을 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콜롬비아 쿠스타프 전도사의 "호산나" 특송, 그리고 후원이사인 김사라 목사와 유니게 전도사의 오카리나 특주("사명")는 모임의 은혜를 더했다.

이어 권케더린 목사 인도로 통성합심기도가 진행됐다. △웨이스선교회에 속한 선교지의 가정기도운동을 통해 가정과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위해 △선교사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선교회 회장단과 임원 그리고 후원이사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후원이사 이희선 목사가 합심기도 마무리 기도를 하고, 황영진 엘살바도르 선교사의 기도도 줌 화상 미팅을 마쳤다.

(기사제공: 웨이스선교회)

캐플린 임상목의 (46)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 병원 캐플린)

다시 광야 속으로(Into the Wilderness again)

2020년이 저물어가면서 백신 개발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2-3 제약회사에서 효과 90% 이상의 백신 임상실험에 성공하여서 연내에 1차 공급을 시작한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운이 떨어지고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앞둔 지금, 일년 가까운 침거생활 및 활동에 제약이 받아 온 시민들은 인내심이 거의 한계에 다다른 듯 여행과 가족 친지 모임이 찾아지고 음식점 및 유흥업소, 관광 및 외부 활동이 급속도로 늘면서 주요도시와 주들을 비롯해 미국 전체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입원자, 사망자가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며 급증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달라스 북부지역의 종합병원들도 중환자실과 코비드 지정 병실층이 만실이 되어가고 있고, 전담 의사나 간호사들은 격무에 지쳐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자도 낮에는 정신과 병동에서 그룹치료 혹은 개인별 방문 상담을 하고 밤에는 ER응급환자와 중환자실 위독환자 돌이 있으면 20분 내에 도착해서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뒤늦게 도착한 가족들을 안내하고 위로합니다. 때로는 담당의사와의 면담을 주선하기도 합니다. 환자가 사망 시엔 가족들을 채플로 안내해서 마지막 환송 예배를 드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러한 모든 정상적인 절차마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짐작하다시피 코비드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응급 상태라도 환자가족은 가장 가까운 한 사람만 방문이 허용되며, 그나마 우리 창문 너머로 마지막 작별을 고향 수 밖에 없습니다. 장례식도 친척 외에는 참석이 안되고 조관예배(viewing)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화장을 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도 검진을 받으려는 환자들과 입원환자들이 많아서 채플마저 환자 스크리닝실로 사용하기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어제는 한국전쟁에도 참전했던 두 분이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미국은 병원에서 재향군인 신분인 환자가 사망할 경우, Final Salute라고해서 병원의 Security Officer들이 미국국기를 갖고 와서 병실에서부터 시신을 덮고 장의사 차가 기다리는 현관까지 모든 직원들이 도열한 가운데 영정사진을 든 가족과 시신을 따라 행진이 지나갈 때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들을 배웅합니다. 제대하지도 오래되고 친 가족조차도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망인과 일부 자손들은 마지막 기도와 경건한 행진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그들의 노고와 업적을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한국의 전몰용사들도, 그 유가족들도 얼마나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운 일생이었는데 이를 알려드리고 존대해 드리는 조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국립헌충원에 안장된 전쟁영웅도 파묘한다는 사람들, 북한의 도발에 의해 침몰된 천안함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도 무시되어지는 나라를 멀리서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생명들은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그들은 보호받고 치료받고 국가와 사회의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조차 없는 무연고자라 할지라도 해당 시와 카운티, 주정부가 철저히 책임을 지고 장례까지 치러주는 그런 나라가 진짜 선진국입니다. K-방역이나 자랑하면서 정치인들이 생색이나 내는 나라가 아니라 노약자와 환자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국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는 나라를 소원하며 오늘도 잠시 기도해 봅니다.

이번 칼럼을 끝으로 저는 당분간 휴식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부족한 종의 쫓김을 읽어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tdspark@gmail.com

개혁의 땀방울

(7면에서 계속)

울타리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루터교회, 개혁교회(장로교회), 그리고 재세례파가 시작되었다. 그 외에 침례교(17세기 초), 감리교(18세기 초), 성결교(19세기 말), 오순절교회(20세기 초) 등은 그 후에 생겨난 역시 개신교 산하의 교파들이다. 이들은 서로 성경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각자의 교리적 전통 속에서 성장해왔다. 각

교파들도 교리적 갈등으로 인해 세분되어 다양한 교단을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지녔지만 그 안에는 매우 보수적인 신앙을 지닌 교회가 있는가 하면 자유주의 사상을 수용하여 성경을 계시된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도 있다.

교회 문턱은 절대적으로 낮아야 한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아야 한다. 그러나 성도는 교회의 교리적 정체성을, 교회는 성도의 신앙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허술한 틈을 원수 마귀가 교회

를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안정되고 평안한 교회라 할지라도, 이단의 공격과 세속적인 자들로 인해 연합이 깨어지고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 각 교회에 침투하여 악한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신천지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성도가 허다하다.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 바르게 목양 받으려면 반드시 교파와 교단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한다. 교회는 성도의 신앙적 양육을 돕는 영적 울타리다. 이와 유사하게 교단은 교회와 목회자를 세속화의 물결로부터 막아주는 영적 울타리이다. 타 교파 또는 교단에 속한 교회로 전입하는 경우, 전에 다니던 교회의 행정체계와 성경 해석의 방향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의 신앙노선을 자세히 알아본 뒤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특정 교회를 정하여 등록하였다는 것은 그 교회의 신앙노선을 반드시 따를 것으로 결심하였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야 한다. 교회는 성도의 신앙적 양육을 돕는 영적 울타리다. 이와 유사하게 교단은 교회와 목회자를 세속화의 물결로부터 막아주는 영적 울타리이다. 타 교파 또는 교단에 속한 교회로 전입하는 경우, 전에 다니던 교회의 행정체계와 성경 해석의 방향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의 신앙노선을 자세히 알아본 뒤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특정 교회를 정하여 등록하였다는 것은 그 교회의 신앙노선을 반드시 따를 것으로 결심하였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covenantcho@yahoo.com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I-20 혹은 J-1 Visa
-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 가능

Midwest University 와 함께 동역할 인재를 찾습니다
(부설- MIRI 연구소,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 교수 1. 경영, 마케팅, 리더십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 2. 신학, 선교, 목회,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3. 국방, 항공, 상담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 소지자
- * Full time or Part time - Online Teaching, 전공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할수 있는 분

- 사역 개발 분야- 산학협력, 인력개발, IT, 마케팅, 항공, 어카운팅과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자

- 자격 1. 미국에서 High School 과 College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 2.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 3. 영주권 스폰 가능
- 4. 관련분야 경력자 선호

- 제출서류: 이력서,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 자기 소개서
- 제출기간: November 20, 2020
- 제출처: jp@midwest.edu

온라인을 오프라인과 동일 현실로 만드는 리더십!

Careynieuwhof.com, 온라인 사역의 미래 다룬 비대면 서밋 통해 사역의 실제와 전략 소개(상)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활 속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거추장스러워 잘 쓰지 않던 보건용품인 마스크가 주요 생필품으로 자리를 잡게 됐으며, 온라인 수업과 강의는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을 대신하는 새로운 표준이 됐다. 임시방편으로 시작했던 많은 일들이 이제는 일상의 자리를 대체되면서, 사회의 모습과 개인의 일상이 새롭게 재편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사역현장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제한된 오프라인 사역현장을 대체하기 위해 시작한 온라인 사역이 어느새 일반적인 사역이 된 것이다.

글로벌컨설팅업체인 알릭스파트너스(Alixpartners)가 최근 '디스럽션 인사이트(Disruption Insight)'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공한 트렌드 분석 내용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축진'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됐으며 앞으로 사람들의 온라인 서비스 의존도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온라인 사역은 어떤 형태로든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새로운 사역환경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온-오프라인 융합의 하이브리드

사람들을 온라인에서도 연결하라

바비 그루왈드 목사는 말한다. "온라인 사역은 단순히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전달하는 창구가 아닙니다. 온라인 사역의 장은 사람들을 연결(connect)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콘텐츠는 그 일을 돕는 촉매제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코로나시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콘텐츠를 온라인 영역에 올려 오프라인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 교회와 기관에서 만든 콘텐츠를 올리는 것으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온라인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콘텐츠만으로 이어진 온라

인 사역의 끈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쉽게 끊어질 수 있다. 이미 기존에 생성된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에 밀려 사역 자체가 사장될 수도 있다.

온라인 사역을 진행하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단순히 설교와 찬양 콘텐츠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대안으로 온라인 영역을 사용하는 데 머물지 않고 "다른 공간과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한 경험을 하고 연결되도록 온라인 영역을 사용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배와 찬양 등 교회에서 생성한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접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더 교회와 연결되고 서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쉽게 말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조성해야 한다.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온라인 콘텐츠

(hybrid) 사역이 뉴노멀(New Normal)이 되는 것이다.

캐나다 코넥스처치(Connexus Church)의 설립자이자 원로목사인 캐리 뉴호프(Carey Nieuwhof) 목사는 최근 온라인교회와 온라인사역의 미래를 다루기 위해 비대면 "서밋(The Online Church Engagement Summit)"을 개최했다. 이 서밋에는 온라인 사역을 이끌고 있는 미국 라이프처치(Life.Church)의 교역자이며 성경앱 YouVersion을 개발한 바비 그루왈드(Bobby Gruenewald) 목사, 오픈도어미니스트리(Open Door Ministries)로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노나 존스(Nona Jones) 목사, 미국 몬타나 주 초대형교회인 프레시라이프교회(Fresh Life Church) 담임목사로 섬기는 레비 루스코(Levi Lusko) 목사가 참여했다.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된 비대면 서밋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온라인 사역의 실제와 전략 중에 효과적인 온라인 사역을 위해 리더들이 생각해봐야 하는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한다.

를 통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성도 것에 대한 반응을 요청할 때, 온



와 소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배를 녹화하거나 실시간으로 송출할 때, 온라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그들을 지칭하는 이름("e-family")와 같이 온라인 청중을 아우르는 호칭)도 불러줄 필요가 있다.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라인 청중에게 댓글을 달아 달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온라인에서 반응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알려줘야 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청중도 오프라인 청중과 연결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참여를 유발하라

노라 존스 목사는 "리더는 사람을 낚는 어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를 관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한다. 코로나시대를 맞이한 사역자의 정체성을 재고할 때, 기존의 오프라인 사역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역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리더는 온라인 사역을 잠시 지나가는 정거장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되며, 앞으로 계속 발전될 새로운 사역 생태계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노라 존스 목사에 따르면 올 2월에 미국 목회자들을 가장 고민하게 만드는 것 22개 중에 한 가지가 "전통적인 교회모형을 어렵게 만드는 온라인교회"였다. 사회는 IT기술과 함께 발전해왔고 사회구성원들도 함께 발맞춰 걷고 있는데, 교회는 전통적인 모형을 계속 추구하며 발전된 사회와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문제는 온라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자라나게 하는가이다. 노라 존스 목사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제자도"라고 말한다.

그녀는 "예를 들어, 페이스북(facebook)이 집이라고 생각해보면, 페이스북 페이지는 마당이며 페이스북 라이브는 열고 들어올 수 있는 현관문과 같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은 아직 교회와 아주 가까운 관계는 아닙니다. 페이스북 그룹이 거실과 같은 역할을 하며, 거실에 들어와야 비로소 관계가 형

성됩니다. 이렇게 사역자들이 온라인 영역을 통합적인 시선으로 보고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한다.

우리는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집중하느라 온라인 영역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사용할지, 온라인 영역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훈련할지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영역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을 방관자 또는 컨텐츠 소비자가 아닌 실제 성도와 제자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라 존스 목사는 "온라인 영역에서 그룹을 모으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의도적인 질문을 통해 참여를 유발하라는 것이다. 온라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실체가 있는 사람들(real people)이다. 그 중에는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온라인 사역을 진행할 때, 온라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참여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해야 한다.

오프라인으로만 사역을 진행할 때보다 더 많이 청중을 향한 질문을 던지고 반응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방관하고 있던 사람에게도 의도적으로 참여를 요청해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영역도 오프라인 영역 못지않게 사역이 이뤄지는 곳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실제로 교회사역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요통

-이삿짐 운송업을 하는 50대 중반의 남성 김 모 씨는 3주 동안 지속되는 허리 통증으로 고통을 겪어왔다. 처음에는 작업 후에 오는 일시적인 통증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시간이

흘러도 통증은 가라앉지 않고 더 심해졌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은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또 통증이 다리 뒤쪽으로 타고 내려오는 것을 느꼈다. 의사를 찾아간 김 씨는 허리 정밀 검사를 받고 통

증의 원인이 일반인들에게 허리 디스크로 알려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요통은 전체 인구의 약 80%에서 한번은 겪게 되는 매우 흔한 질환이다. 요통의 빈도는 20-40대에 가장 흔하지만 허리 통증의 정도는 60대 이후에서 올 경우 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리 통증의 원인은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면, 20-30대에 오는 허리 통증의 원인은 허리 근육의 이상으로 인한 요추 염좌(lumbar sprain)나 디스크 질환 등이 흔하고, 60대 이후에는 골다공증과 관절염이 오면서 척추강이 좁아지는 척추강 협착증(spinal stenosis)이나

디스크 질환 등이 동시에 오는 경우가 많다.

평소에 골다공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경우 척추뼈가 내려앉는 질환인 척추뼈 압박골절(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이 올 수 있다. 그 외에는 드물지만 척추뼈의 감염이나 종양이 뼈로 전이되는 경우도

세대별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허리 통증을 호소할 수 있다. 이처럼 요통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요추 염좌인 경우 허리를 심하게 쓰는 일이 아니면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절대안정을 하는 것이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 허

리 디스크나 척추강 협착증은 심한 정도에 따라서 치료방법을 결정하는데 일차적으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하고 효전이 없을 경우에는 허리에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를 맞아야 할 수 있다.

수술은 마지막 방법으로 시행하는데 요추 질환이 한두

군대로 국한되어 있어서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분명한 경우는 수술 후 후유증이 적고 완치도 가능하지만 여러 부위에 요추 질환이 있는 경우는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될 수 있다.


골다공증이 흔한 한국 여성들에서 흔한 척추뼈 압박골절

로 인한 심한 요통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통증을 현저하게 완화시킬 수 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일일이 병원을 찾을 수 없어 소염제 등으로 통증을 가라앉힐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전문의를 찾도록 한다.

첫째는 밤에 누워 있을 때도 허리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다. 둘째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배변, 배뇨, 성기능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오는 경우다. 셋째는 하지에 감각신경의 이상과 함께 통증이 허리에서 다리로 타고 내려가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척추 질환으로 신경계의 손상이 있거나 척추뼈 압박골절 등이 왔을 수 있다.

▲문의:213-383-9388



kids books that matter.

a kids book about CHANGE


“이민자의 자녀로, 청년 목회자로 사는 저자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러나 어른들에게도 변화는 필요하다!”

한인 이민자의 자녀로서 지금은 미국 교회 목회자로 사역하는 저자가 삶의 큰 변화의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지 그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변화를 겪는 모든 어린이를 위한 책이며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기에 너무 적절한 책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2020년에 가장 좋아하는 책 중의 하나로 선정)

What's Inside
Change is impossible to avoid because it happens ALL the time! In this book, the author speaks on how to cope with and embrace life's changes by recounting personal stories and asking kids pointed questions. Empathetic and encouraging, this book emphasizes talking through life's many changes with the people you care about and trust.

About the Author
David Kim was born in Seoul, Korea, but is now pastoring in Silicon Valley where there is constant change! And as a husband and father of two young girls, he is still learning to navigate change with them every day! You can find him @davidjanghyunkim on instagram and davidjanghyunkim.com.



akidsbookabout.com
Designed in Portland, Oregon
A Kids Book About, Inc

저자: 데이비드 김(웹사이트 주소)
구입문의: 웹사이트 akidsbookabout.com 단체주문서 할인